

# 더니치 호러

The Dunwich Horror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29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책 정보

---

### 원전

H.P. Lovecraft, "The Dunwich Horror" (Weird Tales 1929  
년 4월)

###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50133 (퍼블릭 도메인)

###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5

##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니치 호러

H. P. 러브크래프트 저

"고르곤이나 히드라, 키메라, 그리고 셀레노와 하르피아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들은 미신에 사로잡힌 이들의 머릿속에서 다시금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존재들은 이미 그전부터 그곳에 있었다. 그것들은 기록된 형상이며 유형일 뿐이다. 원형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며 영원하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거짓임을 분명히 아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토록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대상들을 단순히 육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여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공포들은 훨씬 더 오래된 것이다. 그것들은 육체의 시대를 넘어 존재한다. 육체가 없었더라도 그 공포는 여전했을 것이다. 여기서 다루는 공포의 종류는 순전히 정신적인 것이다. 이 공포는 지상에 실체가 없을수록 더욱 강력해지며, 죄를 알기 전인 유아기에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적어도 전생이라는 그림자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줄지도 모른다." —— 찰스 램, 『마녀와 다른 밤의 공포』 중에서.

매사추세츠 북중부 지역을 여행하던 이가 딘스 코너스 바로 너머 에일즈버리 가도 교차로에서 길을 잘못 들면, 외롭고도 기이한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지형은 점점 높아지고, 가시덤불로 뒤덮인 돌담은 먼지 날리는 굽이진 길의 바퀴 자국을 향해 점점 더 가깝게 압박해 들어온다. 곳곳에 나타나는 숲의 나무들은 지나치게 거대해 보이며, 들판을

뒤덮은 잡초와 가시덩굴, 풀들은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기괴한 생명력을 뿜어낸다. 반면 경작지는 유독 드물고 황량해 보이며,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집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낡고 지저분하며 폐허가 되어 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문턱이나 바위가 흩어진 경사진 초원에서 이따금 보이는 뒤틀린 형체들에게 길을 묻기를 주저하게 된다. 그 형체들은 너무나 침묵을 지키며 은밀하게 움직여서,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금기된 무언가와 대면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차라리 모르는 척 지나치는 편이 나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길이 높아져 깊은 숲 위로 산맥이 모습을 드러내면, 이 기묘한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산봉우리들은 지나치게 둥글고 대칭적이어서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주지 못한다. 때로는 하늘을 배경으로, 산 정상들을 장식하고 있는 기이한 원형의 거대한 돌기둥들이 유독 선명한 실루엣을 드러내며 서 있기도 한다.

길목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협곡과 구렁이 교차하며, 투박하게 만들어진 나무다리들은 언제나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인다. 길이 다시 낮아지는 구간에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일으키는 습지대가 펼쳐진다. 특히 해 질 녘이면 그 공포는 더욱 짙어진다. 보이지 않는 윙푸어윙(whippoorwill)들이 재잘거리고, 시끄럽게 울어대는 황소개구리의 기괴하고도 집요한 리듬에 맞춰 반딧불이들이 비정상적일 만큼 무리 지어 춤을 추기 때문이다. 미스카토닉강 상류의 가늘고 빛나는

물줄기는 돔 형태의 언덕들 사이를 굽이쳐 흐르며, 마치 기묘한 뱀이 꿈틀거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

언덕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눈길은 바위로 된 정상보다는 나무가 우거진 비탈면에 더 머물게 된다. 그 비탈은 너무나 어둡고 가파르게 솟아 있어,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게 될 정도다. 하지만 그곳을 피해 달아날 길은 어디에도 없다.

지붕이 덮인 다리를 건너면, 시냇물과 라운드 마운틴의 수직 절벽 사이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마을이 나타난다. 그곳에는 이웃 지역보다 훨씬 예전 양식으로 지어진 듯한, 썩어가는 박공지붕들이 무리 지어 있어 묘한 기분을 자아낸다. 하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마음은 이내 불안해진다. 마을의 집 대부분은 비어 있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으며, 깨진 침탑이 달린 교회 건물만이 이 마을의 유일하고도 지저분한 상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리의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갈 때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지만, 피할 방법은 없다.

다리를 건너 마을 거리에 들어서면, 수 세기 동안 쌓인 곰팡이와 부패가 뒤섞인 듯한 희미하고 불길한 악취가 코끝을 스친다. 그 마을을 벗어나 언덕 기슭을 따라 난 좁은 길을 지나, 평탄한 들판을 가로질러 에일즈버리 대로와 다시 만날 때쯤에야 비로소 안도감이 찾아온다. 그러고 나서야 사람들은 자신이 방금 더니치를 지나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곤 한다.

외부인들은 가능한 한 더니치를 방문하지 않는다. 공포의 계절이 지난간 이후로, 더니치를 가리키는 모든 이정표는 철거되었다. 일반적인

미적 기준에서 보자면 이곳의 풍경은 어느 곳보다 아름답다. 하지만 예술가나 여름 휴양객의 발길은 끊긴 지 오래다. 2세기 전, 마녀의 피와 사탄 숭배, 그리고 숲속의 기이한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가 비웃음거리가 아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피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곤 했다. 마을과 세상의 안녕을 염려한 이들이 1928년의 더니치 사건을 은폐한 이후, 이성적인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이곳을 멀리할 뿐이다.

사정을 모르는 외부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지인들의 혐오스러운 타락에 있을 것이다. 뉴잉글랜드의 수많은 낙후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퇴보의 길을 그들은 이미 한참이나 걸어 들어갔다. 그들은 근친교배와 퇴행의 흔적을 정신적, 신체적 낙인처럼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들만의 독특한 인종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평균 지능은 처참할 정도로 낮으며, 그들의 역사는 노골적인 악행과 은밀한 살인, 근친상간, 그리고 차마 이름 붙이기조차 힘든 폭력과 비정상적인 행위들로 악취를 풍긴다.

1692년 세일럼에서 건너온 두세 가문의 후손인 구 귀족층은 일반적인 몰락의 흐름 속에서도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그 가문의 수많은 방계 혈통은 이미 비천한 민중 속으로 깊이 침잠해 버렸고, 이제는 그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혈통의 기원을 증명하는 이름만이 겨우 남아 있을 뿐이다. 웨이틀리 가문과 비숍 가문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장남들을 하버드나 미스카토닉 대학에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마친 아들들이 자신과 조상들이 태어난 그 곰팡이 핀 박공지붕 아래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

최근 벌어진 그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아는 이들조차 더니치에 대체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과거 인디언들이 불경한 의식을 치르고 비밀스러운 모임을 갖던 곳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거대한 구름 사이에서 금지된 그림자 형상들을 불러냈으며, 광기 어린 축제와도 같은 기도를 올렸다. 그러면 땅 밑에서는 커다란 파열음과 함께 웅성거리는 울림이 들려오며 그 기도 응답하곤 했다. 1747년, 더니치 마을의 회중교회로 새로 부임한 아비아 호들리 목사는 사탄과 그 수하들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존재한다는 주제로 잊지 못할 설교를 남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옥의 악마 무리가 내뿜는 이 신성모독적인 소리들은 이제 부정하기엔 너무나 흔한 사실이 되어버렸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현재 살아있는 스무 명 이상의 신뢰할 만한 목격자들이 땅 밑에서 들려오는 아자젤과 부즈라엘, 바알세불과 벨리알의 저주스러운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나 자신도 불과 보름 전, 집 뒤편 언덕에서 악한 권세들이 나누는 대화를 아주 또렷하게 들은 적이 있다. 그 소리는 달그락거리고 굴러다니는 소리, 신음과 비명, 그리고 쉼쉼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는데, 결코 이 세상의 존재들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흑마법으로만 찾아낼 수 있고, 오직 악마만이 열 수 있는 동굴 속에서 흘러나온 것이 분명했다.

호들리 씨는 이 설교를 마친 직후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스프링필드에서 인쇄된 설교문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언덕에서 들려오는 기

괴한 소음은 해를 거듭하며 계속 보고되었고, 지질학자들과 지형학자들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언덕 꼭대기에 돌기둥을 원형으로 세워둔 곳 근처에서는 불쾌한 악취가 풍긴다고 한다. 거대한 협곡 아래의 특정 지점에서는 정해진 시간마다 공기가 급히 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나무나 관목, 심지어 풀 한 포기조차 자라지 않는 황량하고 황폐한 언덕인 '데빌스 홉 야드'를 설명하려 애쓰기도 한다. 게다가 현지인들은 따뜻한 밤이면 울음소리를 높이는 수많은 쇠독새를 죽을 만큼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이 새들이 죽어가는 이의 영혼을 기다리며 매복하는 영혼의 인도자라고 믿는다. 새들이 내뿜는 기괴한 울음소리는 고통받는 이의 가쁜 숨결과 마치 맞춘 듯 일치한다고 한다. 만약 새들이 육체를 떠나 달아나는 영혼을 붙잡는 데 성공하면, 그들은 즉시 악마 같은 웃음소리를 내며 파닥거리고 날아가 버린다. 하지만 영혼을 놓치고 만다면, 새들은 실망한 듯 서서히 침묵 속으로 잤아든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터무니없는 괴담에 불과하다. 아주 먼 옛날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더 니치는 실로 우스꽝스러운 정도로 오래된 마을이다. 인근 30마일 이내의 그 어떤 마을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었다. 마을 남쪽으로 눈을 돌리면 1700년 이전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비숍 가문의 지하실 벽과 굴뚝이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1806년에 세워진 폭포 근처 제분소 폐허가 이 지역에서 가장 근대적인 건축물로 남아 있다. 이곳은 산업이 번창하지 못했고, 19세기에 일어난 공장 건설 열풍도 오래가지 못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언덕 꼭대기에 세워진 거칠게 깎인 돌기둥들이 거대한 원을 그리며 늘어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이 기둥들을 정착민이 아닌 인디언들이 세운 것이라 여긴다. 센티넬 힐에 있는 거대한 탁자 모양의 바위 주변과 이 돌기둥 원 안에서 해골과 뼈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이 과거 포컴텍 부족의 묘지였다고 믿는다. 비록 많은 인류학자가 그러한 가설이 터무니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무시한 채, 발견된 유해들이 백인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1913년 2월 2일 일요일 오전 5시, 월버 웨이틀리가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더니치 마을에서 4마일 떨어진 언덕 기슭의 커다란 농가였다. 그 집은 부분적으로만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주거지와는 1.5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다. 이 날짜가 기억되는 이유는 그날이 캔들마스(Candlemas)였기 때문이다. 더니치의 사람들은 이 축일을 기묘하게도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기념하곤 했다. 또한, 그 전날 밤 내내 언덕 너머에서 정체 모를 소음이 들려왔고, 인근의 모든 개가 밤새도록 짖어댔던 탓도 있었다.

그보다 덜 중요하지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이의 어머니가 타락한 웨이틀리 가문의 일원이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서른다섯 살의 알비노 여성이었는데, 외모가 다소 기형적이고 매력이 없었다. 그녀는 노쇠하고 반쯤 미쳐버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 아버지는 젊은 시절, 마법을 부린다는 끔찍한 소문이 무성했던 인물이었다. 라비니아 웨이틀리에게는 알려진 남편이 없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관습에 따라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자식임을 부정하려 들지 않았다. 아이의 혈통 중 나

머지 한 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마음껏 추측을 내뱉었고 실제로도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오히려 라비니아는 아이를 묘하게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아이는 병약하고 분홍빛 눈을 가진 어머니의 알비노 외모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검고 염소처럼 생긴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이가 지닌 비범한 능력과 거대한 미래에 대해 기묘한 예언들을 중얼거리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기도 했다.

라비니아는 그런 말들을 중얼거릴 법한 성격이었다. 그녀는 천둥번개가 치는 언덕을 헤매고 다니는 외로운 존재였으며, 웨이틀리 가문이 2세기 동안 물려받은 거대하고 악취 나는 책들을 읽으려 애쓰곤 했다. 그 책들은 세월의 흐름과 벌레 구멍 때문에 속절없이 바스러져 가고 있었다. 라비니아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지만, 노(老) 웨이틀리가 가르쳐준 파편화된 고대의 지식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다.

노 웨이틀리가 흑마술을 부린다는 악명 때문에 그 외딴 농가는 늘 공포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라비니아가 열두 살 때 웨이틀리 부인이 폭력적인 사고로 의문사하면서, 그곳은 더욱 기피하는 장소가 되었다. 기이한 영향력들에 둘러싸여 고립된 채 살아가는 라비니아는 거칠고 웅장한 백일몽과 기묘한 일들에 몰두하곤 했다. 질서와 청결이라는 기준이 사라진 지 오래인 집이었기에, 그녀의 여가 시간은 가사 노동에 뺏기는 일도 거의 없었다.

월버가 태어나던 밤, 언덕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개 짖는 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아이의 탄

생을 지켜본 의사나 산파는 아무도 없었다. 이웃들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노인 웨이틀리가 눈 덮인 길을 따라 썰매를 몰고 더니치 마을로 들어와, 오스본 잡화점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횡설수설 이야기를 늘어놓기 전까지는 말이다. 평소 웬만한 집안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노인이었으나, 그날은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흐릿한 정신 속에 새로이 깃든 은밀함이, 그를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던 존재에서 스스로 공포를 느끼는 주체로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노인은 훗날 그의 딸에게서도 발견될 법한 묘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그리고 그가 아이의 혈통에 대해 내뱉은 말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수년이 흐른 뒤에도 생생히 남았다.

"남들이 뭐라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 라비니의 아들이 제 아비 닮았다 해도, 당신들이 예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테니까. 이 근방 사람들만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라비니는 글도 좀 읽고, 당신들 대부분은 말로만 떠드는 그런 것들을 직접 보기도 했으니까. 내가 보기에 그 남자는 에일즈버리 이쪽 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남편이야. 만약 당신들이 나만큼 이 언덕들에 대해 안다면, 라비니가 교회에서 결혼을 했든 아니든 더 바랄 게 없을 거라고 말할걸. 내가 하나만 말해두지. 언젠가 당신들은 라비니의 아이가 센티넬 힐 꼭대기에서 제 아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거야!"

월버가 태어난 첫 한 달 동안 그를 본 사람은 단 두 명뿐이었다. 하나는 쇠락해가는 웨이틀리 가문의 노인, 제카라이아 웨이틀리였고, 다른 하나는 얼 세이어의 사실혼 아내인 메이미 비숍이었다. 메이미가 찾아

온 것은 솔직히 호기심 때문이었는데, 이후 그녀가 늘어놓은 이야기들은 당시 목격한 바를 충분히 잘 전달해주었다. 하지만 제카라이아는 아들 커티스로부터 산 엘더니 암소 두 마리를 몰고 오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 율버의 가족은 소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 기묘한 가축 매입 행위는 더니치의 공포가 나타났다 사라진 1928년에 이르러서야 끝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름한 웨이틀리 가문의 외양간이 가축으로 북적거린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한때 사람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낡은 농가 위 가파른 언덕에서 위태롭게 풀을 뜯는 가축의 수를 세러 몰래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혈색 없이 창백하고 병약해 보이는 소 열 마리나 열두 마리뿐이었다.

분명 어떤 역병이나 질병이 웨이틀리 가문의 가축들을 몰살시키고 있었다. 아마도 불결한 외양간의 썩은 목재나 병든 곰팡이, 혹은 해로운 목초지에서 비롯된 것일 터였다. 눈에 보이는 가축들에게는 마치 칼로 그은 듯한 기묘한 상처나 종기가 생겨나곤 했다. 게다가 초기에 방문했던 이들 중 몇몇은, 수염도 깎지 않은 회색빛 노인과 지저분하고 곱슬거리는 백발을 가진 그의 알비노 딸의 목 주변에서도 이와 비슷한 종기를 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율버가 태어난 뒤 맞이한 봄, 라비니아는 다시 평소처럼 언덕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에 맞지 않게 비대해진 팔로 거무스름한 아기를 안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아기를 본 뒤로는 웨이틀리

가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사그라들었다. 새로 나타난 이 아이가 매일 같이 보여주는 놀라운 성장 속도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관심을 두거나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

월버의 성장은 실로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태어난 지 불과 석 달 만에, 그는 돌도 지나지 않은 영아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체구와 근력을 갖추었다. 아이의 움직임과 목소리조차 영아에게서는 극히 보기 드문 절제됨과 신중함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생후 7개월이 되었을 때 월버가 도움 없이 혼자 걷기 시작했을 때도, 사람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다. 비록 처음에는 비틀거렸으나, 한 달 정도 지나자 아이는 곧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할로윈 날이었다. 자정 무렵, 고대의 유골이 쌓인 고분 사이로 거대한 탁자 모양의 바위가 솟아 있는 센티넬 힐 정상에서 거대한 불길의 치솟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썩지 않고 살아남은 비숍 가문의 일원인 사일러스 비숍이 증언한 내용 때문이었다. 그는 불길이 목격되기 약 한 시간 전, 그 소년이 어머니보다 앞서 씩씩하게 언덕을 뛰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당시 사일러스는 길을 잃은 암소를 몰고 있었으나, 희미한 랜턴 불빛 속에서 두 형체를 스치듯 발견한 순간 하던 일조차 잊어버릴 뻔했다. 그 형체들은 덩불 사이를 거의 소리도 없이 가로질러 사라졌다. 경악한 사일러스는 그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였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그는 소년의 차림새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소년

이 술식 같은 장식이 달린 벨트를 매고 있었거나, 짙은 푸른색 반바지 혹은 바지를 입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월버 웨이틀리는 단 한 번도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채,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목격된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단추를 끝까지 꼭 채워 옷을 입었으며, 옷차림이 흐트러지거나 흐트러질 것 같으면 언제나 분노와 공포에 휩싸이곤 했다. 지저분한 차림의 어머니나 할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월버의 유별난 모습은 매우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1928년에 벌어진 그 끔찍한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다음 해 1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라비니의 검은 자식"이 고작 생후 11개월 만에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가벼운 가십거리로 떠돌았다. 아이의 말씨는 두 가지 면에서 무척이나 기이했다. 우선 이 지역 특유의 억양과는 판이하게 달랐고, 무엇보다 세네 살 된 아이들도 부러워할 만큼 혀 짧은 소리가 전혀 없었다. 아이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입을 열 때마다 더니치와 그 주민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무언가 포착하기 힘든 이질적인 요소가 배어 나왔다. 그 기묘함은 아이가 내뱉는 말의 내용이나 사용하는 단순한 관용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이의 억양, 혹은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내장 기관 자체와 막연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이의 얼굴 또한 지나치게 성숙해 보여 눈길을 끌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턱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음에도, 단단하고 일찍이 자리 잡은 듯한 코와 크고 검은, 마치 라틴계 혈통을 연상시키

는 눈매가 어우러져 흡사 성인 같은 분위기와 초자연적인 지성을 풍겼다. 하지만 그런 영민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지독하게 못생겼다. 두툼한 입술과 모공이 넓고 누르스름한 피부, 거칠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기이하게 길쭉한 귀에서는 마치 염소나 짐승 같은 느낌이 풍겼다.

사람들은 곧 아이를 그의 어머니나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싫어하기 시작했다. 아이에 관한 모든 추측에는 옛날 웨이틀리 노인이 부리던 마법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돌로 둘러싸인 원형 안에서 커다란 책을 품에 안고, \*요그소토스\*라는 공포스러운 이름을 비명처럼 내지르면 산들이 통째로 흔들렸다는 식의 이야기 말이다. 개들조차 아이를 혐오했기에, 아이는 짓어대는 개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늘 여러 방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그사이 늙은 웨이틀리는 소 떼의 규모를 눈에 띄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가축을 사들였다. 그는 목재를 베어 오기도 했고,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 집은 지붕이 뽕족하고 넓은 구조였는데, 뒷부분은 바위투성이인 산비탈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다. 그동안은 가장 덜 허물어진 1층 방 세 곳만으로도 노인과 그의 딸이 지내기에 충분했다. 노인이 이토록 고된 노동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에게 엄청난 기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때때로 노인은 여전히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내뱉곤 했지만, 그의 목공 솜씨만큼은 치밀한 계산이 깔린 듯 정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월버가 태어나자마자 시작되었다. 당시 그는 수많은 도구 창고 중 하나를 갑자기 정리하더니, 판자를 덧대고 튼튼한 새 자물쇠까지 달아놓았다. 이제 버려졌던 집의 위층을 복구하는 작업에서도 그는 여전히 빈틈없는 장인의 면모를 보였다. 다만 그의 광기는 복구한 구역의 모든 창문을 판자로 뽁뽁하게 막아버리는 행동에서 드러났다. 사실 많은 이들이 애초에 그 버려진 공간을 왜 수리하느냐며 미친 짓이라고 말하곤 했다.

새로 태어난 손자를 위해 1층의 다른 방 하나를 꾸미는 모습은 그나마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방문객 중 몇몇은 그 방을 보기도 했지만, 판자로 틈 없이 막아버린 위층 방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노인은 그 방에 높고 견고한 선반들을 설치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집안 곳곳의 구석진 곳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던 썩어가는 고서들과 책의 파편들을, 그 선반 위에 아주 세심하고 질서 정연하게 정리해 두기 시작했다.

"내가 그것들을 좀 써먹긴 했지." 녹슨 주방 난로 위에서 만든 폴로 찢어진 흑자체 페이지를 붙이며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 아이라면 그것들을 훨씬 더 잘 써먹을 게야. 그놈한테는 그것들이 배움의 전부가 될 테니, 할 수 있는 한 잘 갖춰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게야."

1914년 9월, 월버 웨이틀리가 생후 1년 7개월이 되었을 무렵, 아이의 체구와 능력은 거의 경악스러울 정도였다. 월버는 이미 네 살 아이만큼이나 덩치가 커졌고, 말도 유창하게 잘할 뿐 아니라 민기 힘들 정도로 영특했다. 아이는 들판과 언덕을 자유롭게 뛰어다녔으며, 어머니

가 어디를 가든 늘 곁을 지켰다. 집 안에서 월버는 할아버지의 책에 담긴 기이한 그림과 도표들을 열심히 들여다보곤 했다. 그사이 노인 웨이틀리는 고요하고 긴 오후 내내 아이를 가르치고 문답을 주고받았다.

그 무렵 집의 수리 작업도 끝났다. 집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위층 창문 중 하나가 왜 튼튼한 나무 판자로 막혀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 창문은 언덕과 맞닿은 동쪽 박공벽 뒷면에 있었는데, 땅에서부터 그 창문까지 나무 발판을 계단처럼 이어 붙여 놓은 모습은 도무지 이유를 짐작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사람들은 또 다른 변화를 알아차렸다. 월버가 태어난 이후부터 창문도 없이 판자로 꽉 막힌 채 잠겨 있던 낡은 도구 창고가 다시 버려진 상태가 된 것이다. 창고 문은 힘없이 열린 채 달랑거렸다. 한번은 열 소녀가 웨이틀리 노인에게 가축을 팔러 갔다가 그 창고 안으로 발을 들인 적이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마주한 기이한 악취 때문에 무척이나 당혹스러워했다. 소녀의 말에 따르면, 그 냄새는 평생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것이었다. 언덕 위 인디언들의 유적 근처에서 맡았던 냄새를 제외하면 말이다. 그는 그 악취가 이 세상의 것이나 제정신인 존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더니치 사람들의 집이나 창고가 원래부터 냄새 하나만큼은 깔끔하기로 유명한 곳은 아니었다.

그 후 몇 달 동안은 눈에 띄는 사건이 없었다. 다만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언덕의 소음이 느리지만 꾸준히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아 증언할 뿐이었다. 1915년 5월 이브에는 에일즈베리 주민들조차 느낄 정도의

진동이 일어났다. 그해 할로윈에는 센티넬 힐 정상에서 불꽃이 터져 나올 때마다 기묘하게 박자를 맞추며 땅 밑에서 웅웅거리는 울림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그 마녀 웨이틀리 일가가 벌이는 짓"이라며 수군거렸다.

월버 웨이틀리는 기이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네 살이 되었을 때 이미 열 살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혼자서 열정적으로 책을 읽었지만, 예전보다 말수는 훨씬 줄어들었다. 그는 점점 침묵에 잠겨갔고, 사람들은 그의 염소 같은 얼굴에서 피어오르는 사악한 기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는 생소한 은어를 중얼거리거나 기괴한 리듬에 맞춰 주문을 외우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이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몸서리쳐야 했다.

개들이 그를 보고 보이는 혐오감은 이제 마을의 공통된 화제가 되었다. 월버는 시골길을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 권총을 지녀야만 했다. 그가 가끔 총을 사용하는 모습은 사나운 개를 기르는 주인들 사이에서 그의 평판을 더욱 떨어뜨릴 뿐이었다.

집을 방문한 소수의 손님은 1층에서 홀로 있는 라비니아를 마주하곤 했다. 그럴 때면 판자로 막아버린 2층에서는 기이한 비명과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라비니아는 위층에서 아버지와 그 소년이 무엇을 하는지 결코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한 번은, 익살맞은 생선 장수가 계단으로 이어지는 잠긴 문을 열어 보려 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정상적일 만큼 커다란 공포를 드러낸 적이 있었다.

그 장수는 더니치 마을의 가게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2층에서 말이 발을 구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가게에 모여 있던 이들은 잠긴 문과 위층으로 이어지는 통로,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사라져 버린 가축들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그들은 늙은 웨이틀리의 젊은 시절 이야기와, 특정한 이교도 신들에게 제물로 송아지를 바칠 때 땅속에서 불러내어지는 기괴한 존재들에 관한 전설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얼마 전부터 개들이 어린 월버 웨이틀리 개인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만큼이나, 웨이틀리 가문의 저택 전체를 격렬하게 증오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눈에 띄고 있었다.

1917년 전쟁이 터졌다. 지역 징집 위원회 의장이었던 스콰이어 소이 어 웨이틀리는 훈련소로 보낼 만한 자격을 갖춘 더니치의 젊은이를 할당만큼 찾아내는 데 애를 먹었다. 정부는 이 지역 전체가 급격히 타락하고 있다는 징후에 경악하며, 조사를 위해 여러 장교와 의료 전문가들을 파견했다. 이들이 실시한 조사는 뉴잉글랜드의 신문 독자들이라면 지금도 기억할 법한 사건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언론의 관심이 기자들을 웨이틀리 가문으로 이끌었다. 이에 따라 《보스턴 글로브》와 《아컴 애드버타이저》는 연일 화려한 일요 특집 기사를 쏟아냈다. 기사들은 어린 월버의 기이할 정도로 빠른 성장, 노인 웨이틀리의 흑마술, 서가에 가득한 기괴한 책들, 그리고 봉인된 오래된 농가 2층 공간과 이 지역 전체의 기괴함, 그 언덕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을 다루었다.

당시 네 살 반이었던 윌버는 열다섯 살 소년처럼 보였다. 입술과 뺨에는 거칠고 검은 솜털이 듬성듬성 나 있었고, 목소리도 변성기가 시작된 상태였다. 기자들과 사진기사들이 몰려들었을 때, 얼 소이어는 웨이틀리 가의 저택으로 그들을 안내하며 봉인된 위층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기괴한 악취를 가리켰다. 그는 그 냄새가 예전에 집을 수리할 때 버려진 공구 창고에서 맡았던 냄새와 똑같으며, 산속의 돌무더기 근처에서 가끔 맡게 되는 희미한 악취와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더니치 주민들은 기사가 실릴 때마다 이를 읽으며, 기사 속 명백한 오류들을 보고 비웃었다. 또한 그들은 기자들이 왜 노인 웨이틀리가 가축 값을 항상 아주 오래된 금화로 지불한다는 사실을 그토록 강조하는지도 의아해했다. 웨이틀리 가문은 방문객들을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며 맞이했다. 하지만 거칠게 저항하거나 대화를 거부하여 더 큰 화젯거리가 되는 일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지난 10년 동안 웨이틀리 가문의 기록은 그 기괴한 행태에 익숙해진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무심하게 잦아들었다. 마을 공동체는 이미 그들의 기이한 방식에 길들여졌고, 5월 전야나 만성절에 벌어지는 그들의 난잡한 축제에도 무뎌져 있었다. 일 년에 두 번, 그들은 센티넬 힐 정상에서 불을 피웠다. 그때마다 산은 점점 더 격렬한 진동을 일으키며 울부짖었다. 또한 사계절 내내 그 외딴 농가에서는 기이하고 불길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문객들은 가족 모두가 아래층에 있을 때조차, 굳게 닫힌 위층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린다고 증언하기 시작했다. 사람

들은 그들이 소나 황소를 제물로 바칠 때, 그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혹은 얼마나 길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의아해했다. 동물 학대 방지 협회에 고발하겠다는 말도 돌았으나,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더니치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관심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1923년경, 월버 웨이틀리가 열 살 소년이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월버는 정신 상태나 목소리, 체구, 심지어 수염이 난 얼굴까지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인상을 주었다. 그 무렵, 오래된 저택에서는 두 번째 대규모 목공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는 밀폐된 상층부 내부에서만 이루어졌다. 버려진 목재 조각들을 본 사람들은 소년과 그의 할아버지가 집 안의 모든 칸막이를 부수어 버렸다고 짐작했다. 심지어 다락방 바닥까지 뜯어내어, 1층과 뽕죽한 지붕 사이를 거대한 빈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듯했다. 그들은 중앙에 있던 커다란 굴뚝마저 허물어뜨렸고, 녹슨 난로에는 얇은 양철 연통을 조잡하게 연결해 두었다.

이 사건이 있는 뒤 찾아온 봄, 늙은 웨이틀리는 콜드 스프링 글렌에서 몰려나오는 휩포월 새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밤마다 그 새들이 그의 창가로 날아와 지저귀곤 했다. 그는 이 상황을 매우 중대한 징조로 여기는 듯했다. 그는 오즈번네 가게에서 빈둥거리던 이들에게 자신의 때가 거의 다 왔다고 말했다.

"이제 놈들이 딱 내 숨소리에 맞춰 휘파람을 불어대고 있구려." 그가 말했다. "내 영혼을 낚아챌 준비를 마친 모양이야. 놈들은 내 영혼이 곧 빠져나갈 거라는 걸 알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 들겠지. 애들아, 내

가 떠나고 나면 놈들이 나를 잡아갔는지 아닌지 알게 될 게다. 만약 나를 잡아갔다면, 놈들은 동이 틀 때까지 노래하고 웃어대겠지.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놈들은 조금 조용해질 게야. 내 생각에 놈들과 놈들이 사냥하는 영혼들 사이에는 가끔 아주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 이더군."

1924년 램마스의 밤, 에일즈버리의 호튼 박사는 월버 웨이틀리의 급박한 호출을 받고 서둘러 길을 나섰다. 월버는 남은 말 한 마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붙여 마을에 있는 오즈번네 집까지 달려온 뒤 전화를 걸어 온 상태였다. 현장에 도착한 박사가 마주한 노년의 웨이틀리는 매우 위중했다. 심장 박동은 불규칙했고 숨소리는 거칠고 쉼쉼거렸는데, 이는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징후였다. 형체조차 불분명한 알비노 딸과 기이한 수염을 기른 손자가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사이 머리 위 허공의 텅 빈 심연에서는, 마치 어느 평탄한 해변에 파도가 밀려오듯 규칙적으로 출렁이는 듯한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박사를 가장 괴롭힌 것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밤새의 울음소리였다. 끝도 없이 몰려든 듯한 휘푸어윌(whippoorwill) 무리가 죽어가는 남자의 가쁜 숨소리에 맞춰 악마처럼 기괴한 박자로 끊임없이 울어댔다. 호튼 박사는 이 모든 상황이 기이하고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급박한 호출에 못 이겨 마지못해 발을 들인 이 지역 전체가 그러하듯, 이 광경 또한 지나치게 불길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갈 무렵, 노인 웨이틀리가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썩썩거리며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잠시 멈추더니, 손자에게 몇 마디 말  
을 간신히 내뱉었다.

“공간이 더 필요해, 윌리. 곧 공간이 더 생길 거야. 너는 자라고 있  
어. 그리고 \_그것\_은 훨씬 더 빨리 자라지. 곧 너를 섬길 준비가 될 거  
다, 애야. \_완전판\_ 751페이지에 적힌 긴 주문을 외워 요그소토스로  
향하는 문을 열어라. \_그리고 나서\_ 감옥에 불을 붙여. 지상의 불로는  
절대로 태울 수 없으니까!”

그는 분명히 미쳐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사이 창밖에서는  
핼포월 새 떼의 울음소리가 바뀐 박자에 맞춰 변해갔고, 멀리서는 기괴  
한 언덕의 소음이 간간이 들려왔다. 이윽고 그는 한두 문장을 더 덧붙  
였다.

“윌리, 놈에게 제때 먹이를 주되 양을 잘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너  
무 빨리 자라게 해서는 안 돼. 이 공간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 버  
리면 안 되니까. 만약 놈이 우리 거처를 부수거나, 요그소토스에게 문  
을 열기도 전에 밖으로 새어 나가 버린다면 모든 게 끝장이고 아무 소  
용도 없게 될 테니까. 저 너머에서 온 존재들만이 놈을 증식시키고 부  
릴 수 있다…… 오직 그들만이, 다시 돌아오길 갈망하는 그 오래된 존  
재들만이 가능하단 말이다…….”

말소리는 다시 거친 숨소리에 자리를 내주었다. 휘푸어월 새들이 변  
화에 반응하며 뒤따르는 모습에 라비니아는 비명을 질렀다. 한 시간 넘  
게 그런 상태가 이어졌고, 마침내 목을 굽는 듯한 마지막 덜컥거림이

들려왔다. 새들의 소란이 서서히 잦아들며 정적으로 변하자, 호튼 박사는 흐릿해진 회색 눈 위로 움푹 들어간 눈꺼풀을 내렸다. 라비니아는 흐느꼈지만, 언덕 너머에서 희미한 울림이 들려오는 동안 월버는 그저 킁킁거리며 웃을 뿐이었다.

"그들이 놈을 잡지 못했어." 그가 낮고 묵직한 저음으로 중얼거렸다.

이 무렵 월버 웨이틀리는 편협한 방식이긴 하나 실로 엄청난 박식함을 갖춘 학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희귀하고 금지된 고서들이 보관된 먼 곳의 사서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더니치 주변에서는 그를 향한 증오와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갔다. 마을의 아이들이 사라지는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그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버는 공포를 심어주거나, 혹은 가축을 사는데 꾸준히,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양으로 쓰이는 그 할아버지 시절의 금화를 이용해 언제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

당시 그의 외양은 매우 성숙해 보였다. 키는 이미 성인의 정상 범위를 넘어섰고, 그마저도 계속해서 자라날 기세였다. 1925년, 미스카토닉 대학교에서 온 한 학자가 그를 방문했다가 창백한 얼굴로 당혹스러워하며 떠났을 때, 그의 키는 이미 6피트 9인치에 달해 있었다.

월버는 해가 갈수록 기형적인 백색증을 앓는 어머니를 경멸하며 대했다. 마침내 그는 어머니가 5월의 전야와 할로마스 축제에 자신과 함께 언덕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1926년에는 그 가련한 여인이 메이미 비숍에게 월버를 보는 것이 두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내가 아는 것보다 그놈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이 있단다, 메이미." 그녀가 말했다. "요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맹세코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그놈이 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그해 할로윈, 언덕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센티넬 힐에는 평소처럼 불길이 타올랐지만,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세운 것은 따로 있었다. 불 꺼진 웨이틀리 농가 근처로 몰려든 듯한, 비정상적으로 철이 늦은 거대한 휩푸어월 새 떼가 내지르는 규칙적인 비명이었다. 자정이 지나자 새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마치 아수라장의 웃음 소리처럼 변해 온 들판을 가득 메웠고, 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잤아들었다. 그러더니 새들은 돌연 자취를 감추었고, 이미 한 달이나 늦어버린 남쪽을 향해 서둘러 날아갔다. 이 기이한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야 겨우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 중 죽은 이는 없는 듯 보였으나, 뒤틀린 백색증 환자였던 가련한 라비니아 웨이틀리만큼은 그 후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927년 여름, 월버 웨이틀리는 농장 마당에 있는 창고 두 채를 수리 하더니, 자신의 책과 소지품들을 그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얼 소이어는 오스본네 가게에서 빈둥거리던 사람들에게 웨이틀리 가문의 농가에서 목공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월버는 1층의 모든 문과 창문을 폐쇄하고 있었으며, 4년 전 할아버지와 함께 위층에서 했던 것처럼 벽을 허물어 공간을 넓히는 듯 보였다. 그는 창고 중 한 곳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소이어가 보기에 월버는 유난히 불안해 보였고 몸을 떨며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을 사

람들은 대개 월버가 어머니의 실종 사건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라 의심했고, 이제는 그 근처로 다가가는 이가 거의 없었다. 그의 키는 이미 7피트를 넘어서 있었으며, 성장이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다음 겨울, 월버 웨이틀리가 더니치 지역을 처음으로 벗어났을 때 만큼이나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다. 월버는 간절히 원하는 책 한 권을 빌리기 위해 하버드 대학교의 와이드너 도서관, 파리 국립도서관, 대영 박물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그리고 아킴에 있는 미스카토닉 대학교 도서관에 서신을 보냈으나 모두 실패했다. 결국 그는 직접 길을 나섰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미스카토닉 대학교에 소장된 판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남루하고 지저분한 차림에 수염을 길렀으며, 투박한 사투리를 쓰는 몰골이었다.

키가 8피트에 달하는 이 검고 염소 같은 괴물은 오스본 잡화점에서 산 값싼 새 여행 가방을 들고 어느 날 아킴에 나타났다. 그가 찾아 헤맨 것은 대학 도서관의 자물쇠가 채워진 서가에 보관된, 공포의 대상인 그 책이었다. 바로 17세기 스페인에서 인쇄된 올라우스 워미우스의 라틴어 판본, 미친 아랍인 알하자레드가 저술한 끔찍한 『네크로노미콘』이었다.

그는 도시를 본 적이 없었기에 오직 대학교 부지로 가는 길을 찾는 데만 몰두했다. 실제로 그는 대학교로 향하는 길에서, 부자연스러운 분노와 적개심을 담아 짚어대며 굶은 쇠사슬을 미친 듯이 잡아당기던 거대한 백색 송곳니의 경비견을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채 지나쳐 버렸다.

월버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값은 매우 귀하지만 결함이 있는 디(Dee) 박사의 영문판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라틴어 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되자마자 즉시 두 텍스트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결함 있는 자신의 책에서는 751페이지에 나와야 할 특정 구절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월버는 사서에게 이 사실을 차마 숨기지 못하고 털어놓았다. 그 사서는 바로 박학다식한 헨리 아미티지였다. (미스카토닉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박사, 존스 홉킨스 대학 문학 박사) 그는 예전에 한 번 이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중하게 질문을 던지며 월버를 물어붙이고 있었다. 월버는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요그소토스'라는 공포스러운 이름이 포함된 일종의 주문이나 영창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두 판본 사이에서 발견되는 불일치와 중복, 그리고 모호한 표현들 때문에 내용을 확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 그는 당혹감을 느꼈다.

월버가 마침내 선택한 주문을 옮겨 적고 있을 때, 아미티지 박사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어깨 너머로 펼쳐진 페이지들을 훑쳐보았다. 라틴어 판본이 적힌 왼쪽 페이지에는 세상의 평화와 이성을 위협하는 괴물 같은 문구들이 가득했다.

인간이 지구의 가장 오래된 주인이라거나 혹은 마지막 주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생명과 물질의 거대한 흐름 속에 인간만이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아미티지가 머릿속으로 번역한 원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옛 존재들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공간 '사이'에 있다. 그들은 차원조차 가늠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채 태고의 평온함을 유지하며 거닌다. 요그소토스는 문을 알고 있다. 요그소토스는 문 그 자체다. 요그소토스는 문을 지키는 열쇠이자 수호자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모두 요그소토스 안에서 하나다. 그는 옛날에 옛 존재들이 어디를 뚫고 넘어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통해 다시 넘어올 것인지를 알고 있다. 그는 그들이 지구의 들판을 어디를 밟고 지나갔는지, 지금은 어디를 밟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걸어갈 때 아무도 그들을 볼 수 없는지를 알고 있다. 인간은 때때로 그들의 냄새를 통해 근처에 있음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그 형체만큼은 결코 알 수 없다. 오직 그들이 인류에게 남긴 자들의 모습에서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자들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인간의 가장 진실한 형상과 닮은 것부터, 형체도 실체도 없는 그들 본연의 모습에 이르는 것까지 그 형태가 천차만별이다. 그들은 '말'이 울려 퍼지고 '의식'이 그들의 계절에 맞춰 울부짖는 외딴곳에서, 보이지 않는 불결한 존재로 거닌다. 바람은 그들의 목소리로 횡설수설하고, 대지는 그들의 의식으로 중얼거린다. 그들은 숲을 휘게 하고 도시를 짓밟개버리지만, 숲도 도시도 자신들을 내리치는 그 손을 결코 볼 수 없다. 차가운 황무지의 카다스도 그들을 알고 있으나, 인간이 카다스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남극의 얼음 사막과 가라앉은 섬들에는 그들의 인장이 새겨진 돌들이 있으나, 깊은 곳에 얼어붙은 도시나 해초와 따개비가 오랫동안 뒤덮은 봉인된 탑을 본 자가 누구인가? 위대한 크툴루는 그들의 친척이나, 그조차 그들을 희미하게만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이아, 슈브 니구라스! 너희는 불결함을 통

해 그들을 알게 되리라. 그들의 손이 너희의 목을 죄고 있으나 너희는 그들을 보지 못하며, 그들의 거처는 너희가 지키는 문턱과 맞닿아 있다. 요그소토스는 구체가 만나는 지점인 문의 열쇠다. 인간은 한때 그들이 통치했던 곳을 지금 다스리고 있으나, 머지않아 그들이 지금 인간이 다스리는 곳을 통치하게 되리라. 여름 뒤에는 겨울이 오고, 겨울 뒤에는 여름이 오는 법이다. 그들은 인내하며 강력한 힘을 품은 채 기다리고 있다. 이곳에서 다시금 그들이 군림할 날을 말이다.

아미티지 박사는 읽고 있는 내용과 더니치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을 연결 지어 생각했다. 더니치에 도사린 불길한 존재들, 그리고 의심스러운 탄생부터 모친 살해의 혐의에 이르기까지 어둡고 끔찍한 기운을 뿜어내던 월버 웨이틀리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다. 순간, 박사는 무덤 속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축축한 외풍처럼 실체가 느껴지는 공포의 파도에 휩싸였다. 눈앞에 있는 구부정하고 염소 같은 거인은 마치 다른 행성이나 차원에서 온 후손 같았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부분적으로만 빌렸을 뿐, 모든 힘과 물질, 시공간의 영역을 넘어 거대한 환영처럼 뻗어 있는 심연의 본질 및 존재들과 연결된 무언가처럼 보였다.

이윽고 월버 웨이틀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기이하고도 울림이 큰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인간의 것과는 전혀 다른 발성 기관을 가진 존재가 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아미티지 씨,” 그가 말했다. “그 책은 제가 집으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특정한 조건에서 시험해 봐야

할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절차 따위에 얽매어 시간을 지체하는 건 죽을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발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맹세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아주 소중히 다룰 거라는 말씀은 굳이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이 ‘데(Dee)’ 판본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건 제 탓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서의 얼굴에 완강한 거절의 기색이 서린 것을 보자 그는 말을 멈췄다. 그러자 그의 염소 같은 얼굴에는 교활한 빛이 감돌았다. 아미티지는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 가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으나, 문득 뒤따를 결과가 떠올라 말을 삼켰다. 그런 존재에게 그토록 신성모독적인 외계의 영역으로 통하는 열쇠를 쥐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다.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웨이틀리는 가볍게 대답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다.

“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버드 대학도 당신만큼 까다롭지는 않을 테니까.”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문을 지날 때마다 몸을 구부정하게 숙이며 건물 밖으로 성큼 성큼 걸어 나갔다.

아미티지는 거대한 경비견이 내지르는 야수 같은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교정 한편을 가로질러 가는 웨이틀리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웨이틀리는 마치 고릴라처럼 기괴한 걸음걸이로 성큼성큼 움직이고 있었다. 아미티지는 그동안 들었던 기괴한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애드버타이저》지에 실렸던 오래된 일요 기사들도 생

각났다. 더니치에 단 한 번 방문했을 때 그곳의 시골뜨기들과 마을 사람들에게서 주워들은 해괴한 지식들도 떠올랐다.

지구의 것이 아닌, 적어도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지구는 아닌 무언가가 뉴잉글랜드의 골짜기를 지나며 악취를 풍기며 끔찍하게 질주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산봉우리 위에 음란하고 불길하게 웅크리고 있었다. 아미티지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확신해 왔다. 이제 그는 침입해 온 공포의 일부가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느꼈다. 한때는 그저 수동적인 악몽에 불과했던 그 오래된 어둠의 영역에서, 지옥 같은 진격이 시작되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혐오감에 몸을 떨며 《네크로노미콘》을 갈무리하여 넣어두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결한 악취가 진동했다. "그들의 불결함을 보면 그들을 알리라." 그는 그 구절을 읊조렸다. 그렇다, 이 냄새는 3년도 채 되지 않은 예전, 웨이틀리의 농가에서 그를 구역질 나게 했던 바로 그 냄새였다. 그는 염소 같은 형상의 불길한 월버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리고 그의 출생을 둘러싼 마을의 소문들을 비웃으며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근친교배라고?” 아미티지가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아서 매컨의 『위대한 신 판』을 보여주기로 하면, 사람들은 그저 더니치에서 흔히 일어나는 추문 정도로 치부해 버리겠지! 하지만 월버 웨이틀리의 아버지는 대체 무엇이었던 말인가. 이 3차원의 지구 안팎에 작용하는, 저 저주받고 형체 없는 영향력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1912년 5월 전야로부터 9개월 뒤인

성축절(캔들마스)에 태어난 그 존재는 대체 무엇이었나. 기괴한 땅을  
림에 대한 소문이 아침까지 명확히 들려오기 시작했던 바로 그 5월의  
밤, 산맥 위를 거닐던 것은 무엇이었던 말인가. 반쯤은 인간의 살과 피  
를 지닌 채, 성 십자가 축일에 이 세상에 달라붙은 저 공포는 대체 무엇  
이었던 말인가?”

그 후 몇 주 동안 아미티지 박사는 월버 웨이틀리와 더니치 주변을  
배회하는 형체 없는 존재들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는 웨이틀리 노인을 마지막 투병 중에 진료했던 에일즈버리의 호튼 박  
사와 연락을 취했다. 호튼 박사가 인용한 노인의 유언에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내용이 가득했다. 더니치 마을을 직접 방문해 보았으나 새로  
알아낸 사실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월버가 그토록 탐욕스럽게 뒤쫓았  
던 《네크로노미콘》의 구절들을 면밀히 조사하자, 이 행성을 막연하  
게 위협하는 기괴한 악의 본질과 수법, 그리고 그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롭고도 끔찍한 단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스톤에서 고대 지식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지  
역의 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아미티지 박사의 경악은 점차 커져 갔  
다. 그 경악은 단계적인 공포를 거쳐, 마침내 영혼을 뒤흔드는 극심한  
두려움의 상태에 이르렀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그는 미스카토닉 계곡  
상류에 도사린 공포와, 인간 세상에 월버 웨이틀리라는 이름으로 알려  
진 그 괴물에 대해 반드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8월 초,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3일 새벽녘, 아미티지 박사는 대학 교정에서 들려오는 사나운 경비견의 거칠고 격렬한 울부짖음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짐승의 으르렁거림과 미친 듯한 짖음은 깊고도 끈적하게 이어졌다. 소리는 점점 커졌으나, 그 사이사이에는 소름 끼치도록 의미심장한 침묵이 섞여 있었다.

그때, 전혀 다른 존재의 목구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킴의 잠든 이들 절반을 깨우고, 그들의 꿈속에 영원히 유령처럼 따라다닐 그런 비명이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도, 혹은 온전히 이 땅에 속한 존재도 결코 낼 수 없는 비명이었다.

아미티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는 길과 잔디밭을 가로질러 대학 건물로 달려갔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고 있었다. 도서관에서는 여전히 도난 경보음이 날카로운 울림을 내뿜고 있었다. 달빛 아래로 열려 있는 창문이 검게 입을 벌린 채 보였다. 무언가가 침입한 것은 분명했다. 짖는 소리와 비명은 이제 낮게 으르렁거리고 신음하는 소리로 변해가며 점점 잦아들고 있었으나, 그 소리가 분명 건물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준비되지 않은 눈으로 마주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본능적인 경고가 아미티지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현관문을 열며 권위 있는 태도로 몰려든 군중을 밀쳐냈다. 사람들 사이에서 위렌 라이스 교수와 프랜시스 모건 박사를 발견했다. 그들은 아미티지가 자신의 추측과 불안감을 일부 털어놓았던 이들이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안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손짓했다.

경계하듯 웅웅거리는 개 짖는 소리를 제외하면, 건물 내부의 소음은 어느덧 거의 잦아든 상태였다. 그러나 아미티지는 갑작스러운 전율과 함께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관목 숲 사이에서 쪽독새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한 것이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숨결에 맞춘 듯, 지독할 정도로 일정한 리듬을 타며 울려 퍼지고 있었다.

건물 안은 아미티지 박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끔찍한 악취로 가득했다. 세 남자는 낮은 신음 소리가 들려오는 작은 계보 열람실을 향해 복도를 가로질러 급히 달려갔다. 잠시 동안 아무도 감히 불을 켜지 못했다. 그러다 아미티지가 용기를 내어 스위치를 올렸다. 세 사람 중 한 명—누구인지는 확실치 않다—이 어지럽게 널브러진 탁자와 뒤집힌 의자들 사이로 펼쳐진 무언가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라이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비록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순간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

황록색의 악취 나는 진액과 타르처럼 끈적이는 액체가 고인 웅덩이 속에는, 옆으로 반쯤 꺾인 채 놓인 괴물이 있었다. 그놈의 키는 거의 9피트에 달했다. 개가 놈의 옷을 모두 찢어놓았고 살점 일부도 물어뜯은 상태였다. 괴물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다. 놈은 소리 없이 경련하며 몸을 움찔거렸고, 놈의 가슴은 밖에서 들려오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쪽독새들의 광기 어린 울음소리에 맞춰 기괴하게 들쭉였다. 방안에는 신발 가죽 조각과 옷가지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고, 창문 바로 안쪽에는 누군가 던져버린 것이 분명한 빈 캔버스 자루가 놓여 있었다. 중앙 책상 근처에는 권총 한 자루가 떨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탄환이 찌그러진 채 발사되지 않은 상태였다. 왜 총을 쏘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괴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른 모든 광경을 압도했다. 인간의 펜으로는 결코 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부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정확한 표현도 아닐 것이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행성의 평범한 생명체나 우리가 아는 3차원의 형상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 괴물의 모습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낼 수 없으리라고 말이다.

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부분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손과 머리는 매우 인간과 흡사했다. 또한 턱이 없는 염소 같은 얼굴에는 웨이틀리 가문의 특징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몸통과 하반신은 괴물학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 괴물이 옷으로 몸을 넉넉히 가리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혹은 박멸당하지 않고 걸어 다닐 수는 없었을 것이다.

허리 위쪽은 반쯤 인간의 형상을 닮아 있었다. 개가 찢어발기던 발이 여전히 경계하듯 엮혀 있는 가슴팍은 악어나 엘리게이터처럼 가죽이 질기고 그물무늬가 촘촘했다. 등은 노란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얼룩덜룩한 모습이었는데, 그 형태는 마치 어떤 뱀의 비늘 덮개를 어렵פות이 연상시켰다.

하지만 허리 아래쪽은 훨씬 더 끔찍했다. 인간의 모습은 거기서 완전히 끊겼고, 그때부터는 순전한 환상 속의 괴물이 나타났다. 피부는 거칠고 검은 털로 두껍게 덮여 있었으며, 복부에서는 붉은 흠반이 달린

길쭉한 회녹색 축수 스무여 개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축수들이 배열된 방식은 기이했는데, 마치 지구와 태양계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우주적 기하학의 대칭을 따르는 듯 보였다. 양쪽 골반에는 분홍빛 섬모로 둘러싸인 움푹한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는 원시적인 눈처럼 보이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꼬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보라색 고리 무늬가 새겨진 일종의 코나 축수 같은 것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발달하지 못한 입이나 목구멍 같은 흔적을 품고 있었다.

사지는 검은 털을 제외하면 지구 선사 시대의 거대 파충류 뒷다리와 대략 비슷했다. 다리 끝에는 핏줄이 도드라진 패드가 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발굽도 아니고 발톱도 아니었다. 괴물이 숨을 쉴 때마다 꼬리와 축수의 색깔이 리듬에 맞춰 변했다. 마치 그 괴물의 비인간적인 혈통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혈액 순환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 축수에서는 녹색 빛이 점점 짙어지는 식으로 색이 변했고, 꼬리에서는 보라색 고리 사이의 공간이 병적인 회백색과 황색을 번갈아 띠며 나타났다. 진짜 피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 그저 악취 나는 회녹색의 액체만이 끈적한 범위 너머로 흘러내리며, 색칠된 바닥 위에 기묘한 변색의 흔적을 남길 뿐이었다.

세 남자의 존재가 죽어가는 괴물을 깨운 듯하자, 그것은 고개를 돌리거나 들어 올리지도 않은 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아미티지 박사는 그 괴물이 내뱉은 소리를 글로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영어로 된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고 확신했다. 처음에는 그 음절들이 지구상의 어떤 언어와도 전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기괴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분명히 《네크로노미콘》의 구절로 보이는 파편들이 띄엄

띠엄 흘러나왔다. 그 괴물이 그 끔찍한 신성모독의 서를 찾아 해마다 죽음에 이른 만큼, 그 파편들은 분명 그 책의 내용이었다. 아미티지 박사의 기억에 따르면, 그 구절들은 다음과 같았다. “N'gai, n'gha'ghaa, bugg-shoggog, y'hah; Yog-Sothoth, Yog-Sothoth.....” 불경한 기대감에 부풀어 울음소리를 점점 높여가는 쪽독새들의 비명 속에서, 그 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지며 사라졌다.

헐떡이던 숨소리가 돌연 멎었다. 개는 고개를 들어 길고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내질렀다. 쓰러져 있는 그 괴물의 황색 염소 같은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고, 커다란 검은 눈동자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폭 꺼져 내렸다. 창밖에서는 쪽독새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갑자기 잦아들었다. 물려든 군중의 웅성거림 너머로, 무언가에 겁에 질린 듯 파닥거리는 날갯짓 소리가 들려왔다. 달을 배경으로, 깃털 달린 감시자들의 거대한 무리가 솟구쳐 올랐다. 먹잇감으로 노리던 그것에 미쳐버린 듯, 그들은 허둥지둥 날아오르며 시야 너머로 사라져 갔다.

그때 갑자기 개가 벌떡 일어나더니, 겁에 질린 듯 짊어대며 들어왔던 창문 너머로 허둥지둥 뛰어 나갔다. 군중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미티지 박사는 밖의 사람들에게 경찰이나 검시관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안으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다. 그는 창문이 충분히 높아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어두운 커튼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내려 쳤다. 그사이 경찰 두 명이 도착했다.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한 모건 박사는, 검시관이 오고 쓰러져 있는 그 형체를 덮어둘 때까지는 악취가 진동하는 독서실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발 참아달라며 간곡히 만류했다.

그사이 바닥에서는 끔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아미티지 박사와 라이스 교수의 눈앞에서 벌어진 수축과 붕괴가 대체 어떤 양상이었으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는지 굳이 묘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얼굴과 손의 외형을 차치하더라도 월버 웨이틀리에게서 인간다운 요소라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검시관이 도착했을 때, 채색된 바닥 판자 위에는 끈적거리는 흰색 덩어리만이 남아 있었고, 그 괴상한 악취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웨이틀리에게는 두개골이나 뼈로 된 골격 같은 것이 애초에 없었던 모양이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진정한 의미의 골격은 말이다.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신의 아버지를 꽤나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짜 더니치의 공포가 시작되기 전의 서막에 불과했다. 당혹감에 빠진 관리들은 형식적인 절차를 처리했고, 기이한 세부 사항들은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숨겨졌다. 사람들은 고인이 된 월버 웨이틀리의 재산을 조사하고 상속인이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더니치와 에일즈버리로 파견되었다.

조사관들이 마주한 시골 마을은 극도로 동요하고 있었다. 돔 형태의 언덕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울림이 번져 나왔고, 웨이틀리가 판자로 막아버린 농가 건물에서는 기괴한 악취와 함께 무언가 출렁이며 들이치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기 때문이다. 월버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말과 가축을 돌보던 열 소녀는 신경쇠약에 걸려 몹시 불안해하는 상태였다.

관리들은 그 악취 나는 판자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갖은 핑계를 대기 바빴다. 그들은 고인이 머물던 거처와 새로 수리한 창고를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낼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관리들은 에일즈버리 법원에 방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스카토닉 계곡 상류에 거주하는, 몰락했거나 혹은 여전히 살아남은 수많은 웨이틀리 가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속권을 둘러싼 소송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거대한 장부에 기이한 문자로 기록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방대한 원고가 발견되었다. 문장 사이의 간격과 잉크의 농도, 필체가 제각각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종의 일기장으로 추정되는데, 주인에게 책상 역할을 했던 낡은 서랍장에서 이 원고를 찾아낸 이들에게 그것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일주일간의 논쟁 끝에, 고인이 남긴 기이한 서적들과 함께 이 원고는 연구와 번역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미스카토닉 대학교로 보내졌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언어학자라 할 지라도, 이 원고의 내용을 쉽게 해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한편, 윌버와 노인 웨이틀리가 채무를 변제할 때마다 사용했던 그 고대의 황금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공포가 터져 나온 것은 9월 9일의 어둠 속에서였다. 저녁 내내 언덕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유독 심했고, 밤새도록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댔다. 10일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은 공기 중에 감도는 기묘한 악취를 알아차렸다. 7시경, 콜드 스프링 글렌과 마을 사이에 있는 조지 코리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 루터 브라운이 소들을 몰고 텐 에이커 초원으로 아침 일을 나갔다가 미친 듯이 달려 돌아왔다. 그가 부엌으로 비

틀거리며 들어왔을 때, 그는 공포로 인해 거의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마당에는 그와 똑같이 겁에 질린 소 떼가 있었는데, 소들은 소년에게 느끼는 공포에 전염된 듯 그를 따라 돌아와 애처롭게 울부짖으며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루터는 숨을 헐떡이며 코리 부인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더듬더듬 설명하려 애썼다.

“저기 글렌 너머 길 쪽을 좀 보세요, 코리 아주머니. 저기에 뭔가 있어요! 천둥이라도 치는 것처럼 냄새가 진동을 한다니까요. 덤불이며 작은 나무들은 마치 거대한 집이라도 그 길을 따라 끌려간 것처럼 길 양옆으로 밀려나 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주머니, 길에 발자국이 있어요. 커다란 통 뚜껑만큼이나 둥글고 거대한 발자국들이요. 코끼리가 지나간 것처럼 아주 깊게 파여 있는데, 도저히 네 발 달린 짐승이 만들 수 있는 모양새가 아니에요. 도망치기 전에 한 두 개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발자국마다 한 지점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선들이 가득했어요. 마치 커다란 야자수 부채를—보통 것보다 두 세 배는 더 큰 부채를—길바닥에 대고 빙글이 돌려놓은 것 같았대니까요. 그리고 그 냄새는 정말 지독했어요. 꼭 웨이틀리 마법사 영감의 낡은 집 주변에서 나는 그 냄새처럼 말이에요.”

그는 말을 더듬었다. 집으로 도망치듯 달려오게 만들었던 그 공포가 다시금 그를 덮친 듯 몸을 떨기까지 했다. 코리 부인은 더 이상 정보를 캐낼 수 없자 이웃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공포의 전조는 마치 서곡처럼 번져 나가며,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을 예고했다.

웨이틀리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세스 비숍의 집 가사도우미, 샬리 소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이번에는 코리 부인이 말을 전하는 대신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잠을 설치던 샬리의 아들 찬시가 웨이틀리의 집 쪽을 향한 언덕 위까지 올라갔다가, 그곳과 비숍 씨의 소들이 밤새 방목되어 있던 목초지를 단 한 번 보고는 겁에 질려 정신없이 달려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네, 코리 부인.” 전화기 너머로 샬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찬시는 방금 막 돌아왔는데, 너무 겁에 질려서 말도 제대로 못 하겠대요! 찬시 말로는 늙은 웨이틀리의 집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대요. 마치 안에 다이너마이트라도 터뜨린 것처럼 목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대요. 1층만 겨우 남아 있는데, 그마저도 정체 모를 타르 같은 물질로 뒤덮여 있대요. 그 물질은 지독한 냄새를 풍기면서, 옆면 목재들이 날아간 자리의 가장자리를 타고 땅바닥으로 똑똑 흘러내리고 있대요. 그리고 마당에는 아주 이상한 흔적들도 있대요. 커다란 술통보다도 더 큰 원형 자국들이 여기저기 찍혀 있는데, 집이 날아간 곳에 묻은 것과 똑같은 끈적끈적한 물질이 잔뜩 묻어 있대요. 찬시 말로는 그 흔적들이 초원으로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서는 헛간보다도 더 넓은 폭으로 풀들이 짓눌려 있고, 가는 곳마다 돌담들이 사방팔방으로 무너져 있대요.”

“그 양반 말이, 코리 부인, 그렇게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찬시가 세스의 소들을 찾으러 나섰답니다. 데빌스 홉 야드 근처 위쪽 목초지에서 소들을 발견했는데,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들 중 절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소들도 절반은 피를 다 빨린 듯 말라비틀어졌

대요. 몸에는 상처가 가득하고요. 마치 라비니의 검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웨이틀리의 가족들에게서나 보던 그런 상처 말입니다. 세스는 지금 소들을 보러 나갔지만, 맹세컨대 마법사 웨이틀리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못 할 겁니다! 철회가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지만, 목초지를 벗어난 커다란 풀밭의 짓눌린 자국이 마을로 이어지는 골짜기 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코리 씨, 내 말 좀 들어보쇼.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오. 내 생각엔 그 검은 윌버 웨이틀리, 마땅히 받아야 할 파멸을 맞이한 그놈이 이 모든 번식의 근원인 것 같소. 난 늘 사람들에게 말해왔지만, 그놈 자신도 온전한 인간이 아니었던 말이오. 그래서 내 생각엔, 그놈과 늙은 웨이틀리가 못질로 막아버린 그 집 안에서 무언가를 키워냈음이 틀림없소. 그건 그놈보다도 더 인간 같지 않은 무언가요. 더니치 주변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소. 인간도 아니고, 인간에게 결코 이롭지도 않은, 살아있는 것들이 말이오."

“어젯밤엔 땅이 울부짖더군요. 새벽녘이 다가올 때쯤엔 콜드 스프링 글렌에서 쪽독새가 어찌나 시끄럽게 울어대던지, 철회가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마법사 웨이틀리네 집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나무를 찢거나 뜯어내는 듯한 소리였는데, 마치 멀리서 커다란 상자나 껍박을 억지로 열어젖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아예 이루지 못했고,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웨이틀리네 집으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코리 부인, 제가 본 건 정말이지 말로 다 못 합니다! 이건 분명 불길한 징조예요. 마을 사내들이 다 모여서 뭐라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오직 신만이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머지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루터가 그 커다란 발자국들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인해 봤소? 아니라고? 글쎄, 코리 부인, 만약 그 발자국들이 이쪽 계곡 길을 따라 찍혔는데 아직 부인 댁까지 오지 않았다면, 내 생각엔 분명 계곡 안쪽으로 들어갔을 거요. 분명 그럴 거란 말이오. 난 늘 콜드 스프링 글렌은 건강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곤 하지. 그곳의 썩독새와 반딧불이들은 단 한 번도 신이 만든 생물처럼 행동한 적이 없었소. 게다가 적당한 곳에 서 있기만 하면, 바위 절벽과 베어스 텐 사이에서 무언가 기이한 것이 공중을 가르며 무섭게 달려가거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오.”

\*\*\*\*\*

그날 밤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집과 외양간마다 가능한 한 튼튼하게 문을 걸어 잠갔다. 말할 것도 없이, 어떤 가축도 탁 트인 목초지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 새벽 2시경, 콜드 스프링 글렌 동쪽 끝 자락에 있는 엘머 프라이의 집에서 끔찍한 악취와 개들의 사나운 짖음 소리가 들려오며 가족들을 깨웠다. 가족들은 모두 밖 어딘가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스치는 소리나 핏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데 동의했다. 프라이 부인이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자고 제안했고, 엘머가 그 말에 동의하려던 찰나, 나무가 부서지는 듯한 굉음이 그들의 대화를 가로막았다. 소리는 외양간 쪽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곧이어 가축들이 비명을

지르며 발을 구르는 소리가 뒤따랐다. 개들은 침을 흘리며 공포로 마비된 가족들의 발치에 바짝 엎드렸다. 프라이는 습관적으로 랜턴을 켜지만, 저 어두운 농장 마당으로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이들과 여자들은 흐느꼈다. 침묵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 덕분에 비명은 간신히 삼킬 수 있었다. 마침내 가축들의 소란이 애처로운 신음으로 잦아들더니, 무언가 크게 부서지고 으스러지며 타닥거리는 소리가 뒤이어 들려왔다. 거실에 웅기종기 모여 있던 프라이 가족은 콜드 스프링 글렌 깊은 곳까지 그 마지막 메아리가 사라질 때까지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마침내 마구간에 서 들려오는 음산한 신음과 글렌에서 들려오는 쑥독새의 악마 같은 울음소리 사이로, 셸리나 프라이가 비틀거리며 전화기로 다가가 이 공포의 두 번째 국면에 대해 알 수 있는 소식들을 전했다.

다음 날, 온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곳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겁에 질린 채 모여들었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았다. 글렌에서 프라이 농장 마당까지는 거대한 파괴의 흔적이 두 줄기 띠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다. 맨 땅이 드러난 곳곳에는 괴물 같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낡은 붉은색 외양간 한쪽 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가축들은 겨우 4분의 1 정도만이 발견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중 일부는 기괴한 파편 상태로 흩어져 있었으며, 살아남은 짐승들도 모두 쏘아 죽여야 했다. 얼 소여는 에일즈버리나 아킴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했지만, 다른 이들은 소용없는 짓이라며 반대했다. 온전함과 타락의 경계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 가문의 일원인 노인 제불론 웨이틀리는, 언덕 꼭대기

에서 어떤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불길하고도 광기 어린 주장들을 늘어놓았다. 그는 전통이 강하게 흐르는 혈통 출신이었기에, 거대한 돌의 원 안에서 울려 퍼지던 주문 소리에 대한 그의 기억은 월버나 그의 할아버지와 전적으로 연결된 것만은 아니었다.

재앙이 닥친 시골 마을에는 어둠이 내려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무기력해서 제대로 된 방어 체계를 갖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가까운 친척끼리 모여 한 지붕 아래 어둠을 견디며 경계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으나, 대체로 전날 밤처럼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전부였다. 머스킷 총에 탄환을 채우고 갈퀴를 손닿는 곳에 두는 식의 무의미하고 무력한 몸짓만 반복될 뿐이었다. 하지만 언덕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음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날이 밝자, 사람들은 이 새로운 공포가 나타났을 때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심지어 어떤 대담한 이들은 글렌 지역으로 공격대를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주저하는 대다수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앞장서지는 못했다.

다시 밤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다시금 바리케이드를 쳤다. 다만 전처럼 가족들이 서로 옹기종기 모여드는 모습은 이전보다 덜했다. 아침이 되자 프라이 가문과 세스 비숍의 집에서는 개들이 흥분해 날뛰고, 멀리서 정체 모를 소리와 악취가 풍겨온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한편, 일찍부터 현장을 살피던 탐사자들은 센티넬 힐을 끼고 도는 도로 위에서 괴물의 발자국이 새로 찍힌 것을 발견하고 공포에 질렸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 양옆에는 그 불경스럽고 거대한 형체가 지나간 듯한 멍든 자국이 선명했다. 발자국의 형태를 보니 마치 두 방향으로 움직인 듯했다.

데, 마치 움직이는 거대한 산이 콜드 스프링 글렌에서 왔다가 같은 길을 따라 다시 돌아간 것 같았다.

언덕 기슭에는 짓눌린 관목과 어린 나무들이 30피트 너비로 길게 늘어져 가파른 위쪽을 향하고 있었다. 조사단은 그 흔적이 아무리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라 해도 멈추지 않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숨을 들이켰다. 그 괴물이 무엇이든 간에, 거의 수직에 가까운 깎아지른 바위 절벽조차 거침없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존재였다. 조사단이 좀 더 안전한 경로를 찾아 언덕 정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은 그 흔적이 정상에서 끝났거나, 혹은 그곳에서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웨이틀리 가문은 바로 이곳에서 매년 5월의 전야와 할로마스 축일에 탁자처럼 생긴 돌 앞에 모여, 지옥 같은 불을 피우고 끔찍한 의식을 거행하곤 했다. 이제 그 돌은 거대한 공포가 휘저어 놓은 광활한 공간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돌의 약간 오목한 표면에는, 그 괴물이 탈출할 당시 폐허가 된 웨이틀리 농가 바닥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이 끈적거리고 악취 나는 검은 타르 같은 물질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그러고는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괴물은 올라왔던 길과 거의 비슷한 경로를 따라 내려온 듯했다. 하지만 추측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성이나 논리, 그리고 인간적인 동기 따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행에 속해 있지 않았던 노인 제블론만이 이 기이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목요일 밤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으나, 그 끝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계곡의 쪽독새들은 유난히도 끈질기게 울어댔고, 그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 새벽 3시경, 공동 전화선에 연결된 모든 전화기가 떨리듯 울려 퍼졌다. 수화기를 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도와줘요, 오, 세상에!..."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 비명이 끊긴 뒤에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이 뒤따랐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고, 아침이 되어서야 그 전화가 어디서 걸려온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같은 전화선에 연결된 모든 이들에게 전화를 돌려 확인해 보니, 프라이 가족만이 응답하지 않았다. 진실은 한 시간 뒤에 드러났다. 무기를 든 사람들이 급히 모여 계곡 끝자락에 있는 프라이가의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 광경은 끔찍했으나, 한편으로는 전혀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흔적과 괴상한 발자국들이 더 늘어나 있을 뿐, 더 이상 집은 남아 있지 않았다. 집은 마치 달걀껍데기처럼 형체도 없이 으스러져 있었다. 폐허 속에서는 살아 있는 것도, 죽어 있는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악취와 타르처럼 끈적거리는 물질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엘머 프라이 일가는 더니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사이, 아컴의 서가로 가득 찬 어느 방 안에서는 더욱 고요하면서도 영적으로는 훨씬 더 강렬한 공포의 국면이 닫힌 문 뒤에서 검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번역을 위해 미스카토닉 대학교로 전달된 월버웨이틀리의 기묘한 원고이자 일기에는 고대와 현대 언어에 정통한 전문

가들 사이에서 커다란 우려와 당혹감이 일었다. 그 글자에 쓰인 알파벳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쓰이던 질은 음영의 아랍어와 전반적으로 닮아 있었으나, 현존하는 그 어떤 권위 있는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미지의 것이었다.

언어학자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 이 텍스트가 암호처럼 보이는 인공 알파벳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가 사용했을 법한 모든 언어를 바탕으로 대입해 보아도, 통상적인 암호 해독 방식으로는 아무런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다. 웨이틀리의 거처에서 압수한 고서들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에게 새롭고도 끔찍한 연구 분야를 열어줄 만큼 흥미롭고 매력적이었으나, 정작 이 문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중 첼제 걸쇠가 달린 육중한 책 한 권은 또 다른 미지의 문자로 쓰여 있었는데, 이는 앞서 본 것과는 판이한 양식이었으며 그 무엇보다 산스크리트어와 흡사했다.

결국 이 오래된 장부는 아미티지 박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졌다. 그가 웨이틀리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언어학적 지식이 해박하고 고대와 중세의 신비로운 주문에 능통했기 때문이었다.

아미티지는 그 알파벳이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어떤 금지된 이교도 집단에서 비의적으로 사용하는 체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 집단은 사라센 세계의 마법사들로부터 수많은 양식과 전통을 물려받은 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만약 그의 짐작대로 그 기호들이 현대 언어의 암호로 쓰인 것이라면, 그 기원이 무엇인지 알아낼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방대한 분량의 텍스트를 고려할 때, 저자가 특정한 주문이나 영창을 제외하고는 굳이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써가며 수고를 들일 리 없다고 믿었다. 따라서 아미티지는 원고의 대부분이 영어로 쓰였을 것이라는 전제를 세우고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아미티지 박사는 동료들이 거듭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며, 이 수수께끼가 매우 깊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순한 방식으로서는 시도조차 해볼 가치가 없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8월 말 내내 그는 자신의 서재에 있는 모든 자료를 긁어모아 암호학 지식으로 스스로를 무장했다. 그는 밤마다 트리테미우스의 『폴리그라피아』, 잠바티스타 포르타의 『도둑맞은 문자 표기법에 대하여』, 드 비제네르의 『암호론』, 팔코너의 『밝혀진 암호 해독법』, 데이비스와 틱네스의 18세기 논문들을 파헤쳤다. 또한 블레어, 폰 마르텐, 클뤼버의 『암호학』 같은 비교적 현대적인 권위서들도 샅샅이 뒤졌다.

그는 책을 연구하는 틈틈이 원고 자체를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 암호가 매우 정교하고 기발한 형태 중 하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암호는 대응하는 철자 목록을 구구단처럼 여러 개 나열해 두고,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아는 임의의 암호 키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구성하는 방식이었다. 고전적인 문헌들이 현대의 책들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듯했다. 아미티지는 이 원고의 암호 체계가 매우 오래된 것이며, 의례를 행하는 신비주의 실험가들의 계보를 통해 전해 내려온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몇 번이나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듯했으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번번이 뒤로 물러나야 했다. 그러다 9월이 다가오자 마침내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원고의 특정 부분에서 사용된 몇몇 철자들이 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텍스트가 실제로 영어로 쓰였다는 사실도 자명해졌다.

9월 2일 저녁, 마지막으로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졌다. 아미티지 박사는 월버 웨이틀리가 남긴 기록 중 처음으로 끊김 없이 이어진 문장들을 읽어 내려갔다. 사람들의 짐작대로 그것은 참으로 일기였다. 문체에는 이 기이한 존재가 지닌 오컬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동시에 지독한 문맹의 흔적이 뒤섞여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미티지 박사가 해독해낸 첫 번째 긴 구절은 1916년 11월 26일 자 기록이었는데,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고 불길했다. 그는 이 글을 쓴 이가 열두서너 살 소년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겨우 세 살 반 된 아이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오늘 사바오스(Sabaoth)를 위한 아클로(Aklo)를 배웠다 — 원고는 이렇게 이어졌다 — 그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공중이 아니라 언덕에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저 위쪽의 존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었으며, 지상의 지능은 그리 높지 않은 듯하다. 엘람 허친스의 콜리 잭이 나를 물려고 하기에 총으로 쏘 죽였다. 엘람은 감히 그럴 수만 있다면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지만, 내 생각에 그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어젯밤 할아버지는 내가 도(Dho) 공식을 계속 읊조리게 시켰고, 나는 자기장의 양극 지점에 있는 내면의 도시를 본 것 같다. 도-흐나(Dho-Hna) 공식을 외워 차원을 돌

파하지 못한다면, 지상의 모든 것이 깨끗이 치워졌을 때 나는 그 양극 지점으로 갈 것이다. 사바트(Sabbat)에서 공중에 있는 존재들이 말하기를, 지상을 다 치워버리려면 수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때쯤이면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을 테니, 나는 이르(Yr)와 느흐응거(Nhhngr) 사이의 모든 차원 각도와 공식을 스스로 익혀야 할 것이다. 외부의 존재들이 도움을 주겠지만, 그들은 인간의 피 없이는 육신을 취할 수 없다. 저 위쪽의 존재는 적절한 형상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유리시(Yoorish) 수인을 맺거나 이븐 가지(Ibn Ghazi)의 힘을 불러넣으면 그것이 조금씩 보이는데, 언덕 위에서 맞이하는 5월의 전야(May Eve) 때의 그들과 매우 흡사하다. 다른 얼굴은 조금씩 지워질지도 모르겠다. 지상이 깨끗이 치워지고 그 위에 지상 생명체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지 궁금하다. 아클로 사바오스와 함께 온 존재는 말하기를, 외부에서 작용할 힘이 워낙 방대하기에 내가 완전히 변모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아미티지 박사는 공포로 인한 식은땀과 깨어 있는 상태에서도 몰아치는 광적인 집중력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원고를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전등 불빛 아래 책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암호 같은 문장들을 해독해 나가는 대로 페이지를 넘기기를 반복했다. 그는 불안한 기색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가 집에서 아침 식사를 가져다주었지만, 그는 한 입조차 제대로 넘기기 힘들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계속해서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러다 복잡한 해독법을 다시 적용해야 할 때면 미칠 것 같은 답답함 속에 읽기를 멈추기도 했다. 점심과 저녁이

차려졌으나 그는 아주 조금밖에 먹지 못했다. 다음 날 밤 중반쯤 이르러서야 그는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 하지만 곧 악몽의 늪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그 꿈은 그가 밝혀낸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진실만큼이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9월 4일 아침, 라이스 교수와 모건 박사는 그를 잠시 만나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으나, 결국 안색이 창백하게 질린 채 몸을 떨며 떠나갔다. 그날 저녁 그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 뜯눈으로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인 수요일, 그는 다시 원고 앞에 앉았다. 그는 현재 읽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미 해독을 마친 부분까지 꼼꼼히 기록하며 방대한 양의 노트를 남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아주 이른 새벽, 그는 집무실 안락의자에서 잠시 눈을 붙였으나 동이 트기도 전에 다시 원고로 돌아왔다. 정오가 되기 전, 주치의인 하트웰 박사가 그를 찾아와 당장 일을 멈추라고 간곡히 권고했다. 그러나 그는 일기를 끝까지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거절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설명하겠노라 약속했다.

그날 저녁, 황혼이 내려앉을 무렵 그는 그 끔찍한 내용을 다 읽어 내려갔고, 탈진한 채 뒤로 몸을 젖혔다. 저녁 식사를 가져온 아내는 그가 반쯤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아내의 시선이 자신이 적어둔 메모로 향하는 것을 본 그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물러나게 할 만큼은 정신이 붙어 있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휘갈겨 쓴 종이들을 모아 커다란 봉투에 넣고 봉했다. 그리고는 곧장 코트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집까지 돌아올 기력은 있었으나, 누가 봐도 의학적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기에 하트웰 박사가 즉시 호출되었

다. 의사가 그를 침대에 눕히는 동안, 그는 그저 "도대체, 신의 이름으로 묻건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말을 끊임없이 중얼거릴 뿐이었다.

아미티지 박사는 잠을 청했으나, 이튿날까지도 부분적으로 섬망 증세를 보였다. 그는 하트웰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지만, 정신이 조금 맑아질 때면 라이스와 모건을 만나 긴급히 회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사의 정신이 극도로 혼미해질 때면 정말이지 경악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곤 했다. 판자로 막아버린 어느 농가에 있는 무언가를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며 미친 듯이 호소하기도 했고, 다른 차원에서 온 끔찍한 고대 종족이 지구상의 인류와 모든 동식물을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늘어놓기도 했다.

그는 세상이 위협에 처했다고 소리쳤다. 고대 존재들이 지구를 통째로 벗겨내어 태양계와 물질의 우주에서 떼어낸 뒤, 까마득한 옛날 수십 비질리언(vigintillions) 겁 전에 한때 떨어져 나왔던 다른 차원이나 존재의 단계로 끌고 가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그가 상상해낸 이 재앙을 막아낼 비책을 찾으려는 듯, 공포의 대상인 《네 크로노미콘》과 레미기우스의 《데모노라트레이아(Dæmonolatrea)》를 애타게 찾기도 했다.

"그놈들을 막아야 해, 막아야 한다고!" 그는 소리치곤 했다. "웨이틀리 가문 놈들은 그것들을 들여보내려 했어. 가장 끔찍한 놈은 아직 남아있단 말이야! 라이스와 모건에게 전해.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한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일이라는 건 알지만, 가루를 만드는 법은 내

가 알고 있어……. 월버가 죽으러 이곳에 온 8월 2일 이후로 그것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는데, 이런 식이라면……."

아미티지는 일흔세 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건장한 체격을 지니고 있었다. 덕분에 그날 밤 그는 심한 열도 나지 않은 채 안정을 되찾으며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금요일 늦게 잠에서 깨어난 그의 정신은 맑았으나, 마음은 무겁고 진지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갇아먹는 듯한 공포와 막중한 책임감이 엄습해 있었다. 토요일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그는 도서관으로 향해 라이스와 모건을 불러 회의를 소집했다. 그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세 사람은 온갖 맹렬한 추측과 필사적인 논쟁을 이어가며 머리를 맞댔다.

서가와 보관소 깊숙한 곳에서는 기괴하고도 끔찍한 책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도표와 공식들 또한 정신없이, 그리고 어지러운 정도로 방대한 양이 베껴졌다. 그들 중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세 사람 모두 그 건물 안의 어느 방 바닥에 놓여 있던 월버 웨이틀리의 시신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 광경을 본 이후로, 그들 중 누구도 그 일기가 미치광이의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으나, 결국 알리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이후 진행된 몇몇 조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듯, 실물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얹혀 있었기 때문이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회의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끝났다. 하지만 일요일 내내 아미티지는 대학

실험실에서 가져온 화학 물질들을 배합하며 여러 공식을 대조하는 데 몰두했다. 그 지옥 같은 일기를 곱씹을수록, 아미티지는 월버 웨이트리가 남기고 간 그 존재를 물리적인 수단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 존재는 지구를 위협할 괴물이었으며, 아미티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불과 몇 시간 뒤에 세상 밖으로 터져 나와, 훗날 '더니치 호러'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재앙이었다.

월요일은 아미티지 박사에게 일요일의 연장선이었다.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끝도 없는 조사와 실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괴물 같은 일기를 계속해서 뒤적일수록 계획은 수시로 바뀌었다. 아미티지 박사는 일이 다 마무리된다 해도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남을 것임을 직감했다. 화요일 무렵에 이르러서야 그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세울 수 있었고, 일주일 안에 더니치로 떠날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수요일, 거대한 충격이 닥쳤다. 《아컴 애드버타이저》지의 구석진 곳에 아주 사소하고 가벼운 기사 하나가 실려 있었다. AP 통신에서 보도한 그 짧은 글에는, 더니치의 밀주가 얼마나 기록적인 괴물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미티지 박사는 정신이 아득해진 채 라이스와 모건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논의를 이어갔고, 다음 날부터 모두가 폭풍처럼 몰아치는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아미티지 박사는 자신이 끔찍한 힘을 건드리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에 누군가가 저질러 놓은, 더 깊고 악의적인 간섭을 되돌릴 방법은 이것뿐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 아미티지와 라이스, 그리고 모건은 자동차를 타고 더니치로 향했다. 오후 1시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쾌청했다. 하지만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도, 기묘하게 돔 모양을 한 언덕들과 이 재앙을 맞이한 지역의 깊고 어두운 협곡 주변에는 무언가 불길한 전조와 정적 어린 공포가 감도는 듯했다. 이따금 산봉우리 위로 하늘을 배경 삼아 앙상하게 늘어선 돌무더기 원형들이 언뜻 비치기도 했다. 오스본 상점에서 느껴지는 숨 막히는 공포를 통해 그들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곧 엘머 프라이의 집과 가족이 몰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오후 내내 그들은 더니치 주변을 돌며 마을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물었다. 동시에 그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며 점점 더 큰 공포에 휩싸였다. 타르처럼 끈적거리는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 황량한 프라이 가의 폐허, 프라이네 마당에 찍힌 신성 모독적인 발자국들, 상처 입은 세스 비숍의 가축들, 그리고 곳곳에서 식물들이 거대하게 짓밟혀 엉망이 된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센티넬 힐을 오르내리는 자국은 아미티지에게 마치 대재앙의 징조처럼 느껴졌다. 그는 산 정상에 있는 불길한 제단 모양의 돌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결국 방문객들은 결단을 내렸다. 프라이 가문의 비극에 대한 첫 전화 신고를 받고 그날 아침 에일즈버리에서 출동한 주 경찰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찰관들을 찾아가 가능한 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어느 방향에서도 경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

다섯 명이 차 한 대에 타고 왔다고는 하나, 정작 프라이 가문의 마당에 남겨진 페허 근처의 차는 텅 비어 있었다.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현지인들도 처음에는 아미티지와 일행만큼이나 당혹스러워 보였다. 그러던 중 노인 샘 허친스가 무언가 떠올랐는지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는 프레드 파를 톡 치며 근처에서 입을 벌린 채 웅크리고 있는, 습하고 깊은 구덩이를 가리켰다.

"세상에나,"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내가 분명히 말했던 말입니다. 그 글렌 아래로는 내려가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 발자국이며, 그 냄새, 그리고 대낮의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힙푸월 새소리까지 보고도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차가운 전율이 스쳤다. 사람들은 마치 본능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듯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다. 아미티지는 이제 막 그 공포와 괴물의 소행을 직접 마주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이 짊어진 책임감에 몸을 떨었다. 곧 밤이 찾아올 것이었다. 산더미 같은 신성모독적 존재가 기괴한 경로를 따라 육중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시간도 바로 그때였다. \*Negotium perambulans in tenebris....\* 노사서는 외위돈 주문들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미처 외우지 못한 다른 주문들이 적힌 종이를 움켜쥐었다. 그는 손에 든 전기손전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곁에 있던 라이스는 여행 가방에서 해충 박멸용으로 쓰이는 금속제 분무기를 꺼냈다. 모건은 동료가 어떤 무기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대형 사냥용 소총을 상자에서 꺼내 들었다.

아미티지는 그 끔찍한 일기를 읽고 난 뒤, 앞으로 어떤 형체가 나타날지 뼈저리게 예감했다. 하지만 그는 더니치 주민들에게 어떠한 암시나 단서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공포를 가중시키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세상에 그 괴물이 무엇인지 알리지 않고도,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랐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흩어졌다. 나무를 휘게 하고 집을 짓뭉개버릴 수 있는 힘 앞에서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자물쇠나 빗장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음에도, 그들은 일단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숨어들기를 간절히 원했다. 사람들은 글렌 근처의 프라이 유적지에서 경계를 서겠다는 방문객들의 계획을 듣고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떠나면서, 다시는 그 감시자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날 밤, 언덕 아래에서 낮은 울림이 들려왔다. 휘파어울 새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위협이라도 하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따금 콜드스프링 글렌에서 불어 올라오는 바람이 무거운 밤공기에 형언할 수 없는 악취를 실어 날랐다. 그 악취는 세 명의 감시자가 예전에 한 번 맡아본 것과 같았다. 15년 반 동안 인간으로 위장하며 살아온, 죽어가는 어떤 존재의 머리맡에 서 있었을 때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하지만 기다리던 공포는 나타나지 않았다. 계곡 아래에 도사린 그것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미티지는 동료들에게, 어둠 속에서 그것을 공격하려 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아침은 힘없이 밝아왔고, 밤새 들리던 소리들도 잦아들었다. 비가 간간이 흩뿌리는 회색빛의 황량한 날이었다. 북서쪽 언덕 너머로는 점점 더 무겁고 짙은 구름이 층층이 쌓여가는 듯했다. 아침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망설였다. 빗줄기가 굵어지자 그들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프라이 가문의 부속 건물 중 하나로 몸을 피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곳에 머물며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지, 아니면 차라리 먼저 움직여 이름 모를 괴물을 찾아 글렌으로 내려가야 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폭우는 점점 거세졌고, 먼 지평선 너머에서 천둥소리가 울려 퍼졌다. 번갯불이 번쩍이며 하늘을 수놓더니, 이내 마치 저주받은 글렌을 향해 내리꽂히듯 번개 줄기가 눈앞까지 번뜩이며 쏟아졌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지켜보던 이들은 이 폭풍이 그저 짧고 강렬하게 지나가고, 곧 맑은 날씨가 찾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한 시간 남짓 지났을 무렵, 사방은 여전히 소름 끼칠 만큼 어두웠다. 길 저편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소음이 들려왔다. 곧 이어 겁에 질린 열두 명 남짓한 사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맨 앞서 달려오던 누군가가 흐느끼며 말을 내뱉기 시작하자, 아침에서 온 사람들은 그 말들이 점차 또렷한 형체를 갖추어 들려오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오, 세상에, 세상에 맏소사!" 목소리가 꺾꺾거리며 터져 나왔다. "그놈이 다시 오고 있어요, 그것도 이번엔 대낮에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에도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언제 우리 모두를 덮칠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실 겁니다!"

말하던 이는 숨을 헐떡이다가 이내 침묵에 잠겼으나, 다른 이가 그 메시지를 이어받았다.

"한 시간 전쯤에 제브 웨이틀리가 전화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교차로 아래쪽에 사는 조지의 아내, 코리 부인이었습니다. 부인 말로는, 그 큰 번개가 친 뒤에 일꾼 루터가 폭풍을 피해 소들을 몰고 들어오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루터가 이쪽 맞은편, 글렌 입구에 있는 나무들이 일제히 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아침에 그 커다란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 말았던 것과 똑같은 끔찍한 악취를 맡았다고 하더군요. 루터의 말로는, 나무나 덩불이 휘어지는 소리보다 훨씬 더 크고 무언가 찰랑거리며 스르륵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길가에 늘어선 나무들이 한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진흙탕을 거칠게 짓밟고 침병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루터가 직접 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무와 덩불이 휘어지는 것만 보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엔 저 앞쪽, 비숍의 개울이 길 아래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들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무언가 끔찍하게 빠걱거리고 뒤틀리는 소리가 났는데, 나무가 짹 짹 갈라지고 쪼개지는 소리였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내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저 나무와 덩불이 휘어지는 것만 보였을 뿐이지요. 그러다 휘익거리는 소리가 아주 멀리, 즉 길을 따라 마법사 웨이틀리의 집과 센티넬 힐 쪽으로 멀어지자, 루터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처음 들렸던 곳으로 가서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방은 온통 진흙과 물바다였고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빗줄기는 발자국을 지우려고 무섭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나무들이 흔들리던 계곡 입구부터는, 월요일에 보았던 것만큼이나 커다란, 마치 통처럼 굵직하고 끔찍한 발자국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흥분한 첫 번째 화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 그건 시작에 불과했지. 제브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고 다들 귀를 기울이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세스 비숍의 집에서 전화가 걸려 온 거야. 그 집 가정부인 샬리는 죽을 듯이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고 있었지. 길가에 있는 나무들이 휘어지는 걸 방금 봤다면서 말이야. 게다가 코끼리가 씹씹거리며 발을 구르는 것 같은, 뭔가 몽푹하고 질척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끔찍한 냄새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더군. 아들 찬시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냄새가 지난 월요일 아침 웨이틀리 폐허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와 똑같다는 거야. 개들도 전부 끔찍하게 짚어대고 킁킁거리고 있었고 말이지."

"그리고 나서 그녀가 끔찍한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더니 길 끝에 있는 헛간이 마치 폭풍에 날아간 것처럼 무너져 내렸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전화기 너머로 사람들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때 갑자기 샬리가 다시 비명을 지르며 앞마당의 울타리가 찌그러져 버렸다고 소리쳤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흔적조차 없었

지만요. 그러자 전화 연결된 모든 사람이 찬시와 늙은 세스 비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어요. 샬리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집을 들이받고 있다고 울부짖었죠. 번개 같은 게 아니었어요. 집 앞쪽을 계속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들이받는 무언가 아주 무거운 것이라고요. 하지만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아미티지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말을 이어가라는 재촉을 건넨 정신조차 겨우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서... 샬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오, 도와줘요, 집이 무너져 내려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기 너머로 끔찍한 굉음이 들려왔고, 수많은 무언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들렸죠... 마치 엘머 프라이의 집이 휩쓸렸을 때 같았어요.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남자는 말을 멈췄다. 그러자 군중 속에서 또 다른 이가 입을 열었다.

"그게 전부요. 그 소리가 들린 뒤로는 전화기 너머로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소. 그저 정적뿐이었지. 마치... 마치 죽은 듯이 말이오. 우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포드 자동차와 마차를 끌어모았고, 긴장한 사내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 모았소. 코리의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 당신이 보기에 가장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여쭙러 여기까지 올라온 거요. 우리 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아닐까 싶기도 하오. 필멸의 인간이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심판 말이오."

아미티지는 이제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그는 겁에 질려 갈팡질팡하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자, 애들아. 반드시 놈을 뒤쫓아야 한다.” 그는 최대한 안심시키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놈을 완전히 없애버릴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너희도 알다시피 웨이틀리 가문은 마법사 집안이었지. 지금 이 괴물 또한 마법의 산물이다. 그러니 마법과 같은 수단으로 물리쳐야만 한다. 나는 월버 웨이틀리의 일기를 보았고, 그가 읽던 기괴한 고서들도 몇 권 읽어보았다. 그 덕분에 저 괴물을 사라지게 만들 적절한 주문이 무엇인지 안다고 확신한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 놈은 보이지 않는다. 내 예상대로였다. 하지만 이 원거리 분무기 안에 든 가루를 뿌리면, 아주 잠깐이라도 놈의 형체를 드러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시험해 보자꾸나. 살아있는 괴물을 마주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월버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이 세상에 불러들였을 것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이 얼마나 큰 재앙을 면했는지 너희는 상상조차 못 할 게다. 지금은 오직 이놈 하나만 상대하면 된다. 놈은 번식할 수도 없다. 비록 엄청난 해를 끼칠 수는 있겠지만, 마을에서 이 괴물을 몰아내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뒤쫓아야 합니다. 우선 방금 파괴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누군가 앞장서 주십시오. 제가 이 지역 길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농장을 가로질러 가는 지름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잠시 발을 구르며 서성였다. 그러다 얼 소녀가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때가 찌든 손가락으로 점차 잿아드는 빗줄기 너머를 가리켰다.

"여기 아래쪽 목초지를 가로질러서, 개울의 낮은 곳을 헤치고 건너 가게나. 그리고 나서 캐리어네 풀밭을 지나 저 너머 삼림 지대를 타고 올라가면 세스 비숍의 집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을 게야. 그러면 세스네 집 근처인 위쪽 길로 이어질 테니. 집은 그 길 바로 너머에 있다네."

아미티지는 라이스, 모건과 함께 지시된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 대부분도 그 뒤를 천천히 따랐다. 하늘은 점차 밝아졌고, 폭풍도 기세가 꺾여 사그라드는 기색이었다. 아미티지가 실수로 길을 잘못 들자, 조 오스본이 그를 경고하며 앞장서서 올바른 길을 안내했다. 사람들의 용기와 자신감도 점차 차올랐다. 하지만 지름길 끝에 놓인, 거의 수직에 가까운 숲이 우거진 언덕이 문제였다. 기괴하고 오래된 나무들 사이를 마치 사다리를 타듯 기어올라야 하는 그 언덕의 어스름한 풍경은, 사람들의 용기와 자신감을 가혹하게 시험했다.

마침내 그들은 진흙탕 길로 나섰고, 마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세스 비숍의 저택을 조금 지나친 지점에 있었다. 하지만 구부러진 나무들과 끔찍할 정도로 선명한 발자국들은 이곳을 무엇이 휩쓸고 지나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길 모퉁이를 돌아마자 나타난 폐허를 살펴보는 데는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프라이 사건이 다시 일어난 듯한 광경이었다. 무너져 내린 비숍 가의 저택과 헛간 잔해 속에서는 죽은 것이든 살아있는 것이든 아무것도 발견

되지 않았다. 악취와 타르 같은 끈적임이 진동하는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모두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한곳을 향했다. 그것은 파괴된 웨이틀리 가의 농가와 제단이 없힌 듯한 센티넬 힐의 경사면을 향해 길게 이어진, 소름 끼치는 발자국들이었다.

사람들이 월버 웨이틀리의 거처를 지나칠 때, 그들은 눈에 띄게 몸을 떨었다. 열의를 다하면서도 다시금 망설임이 섞인 기색이 역력했다. 보이지도 않으면서 악마 같은 사악함만을 가득 품은, 집 한 채만큼이나 거대한 무언가를 추적하는 일은 결코 농담 따위가 아니었다. 센티넬 힐 기슭 맞은편에서 발자국은 길을 벗어났다. 그곳에는 괴물이 정상과 아래를 오가며 지나간 넓은 경로를 따라, 풀들이 꺾이고 짓눌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아미티지는 성능이 꽤 좋은 휴대용 망원경을 꺼내 언덕의 가파른 초록빛 사면을 훑었다. 그리고는 시력이 더 좋은 모건에게 망원경을 건넸다. 잠시 동안 그곳을 응시하던 모건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는 곧바로 얼 소이어에게 망원경을 넘겨주며 사면의 어느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광학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치고 둔하지 않은 이가 없듯, 소이어 역시 한동안 망원경을 만지작거리며 애를 먹었다. 하지만 결국 아미티지의 도움을 받아 렌즈의 초점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 초점이 맞춰지자, 소이어는 모건이 내뱉었던 비명보다 훨씬 더 억제되지 않은 비명을 질러댔다.

"맙소사, 풀이랑 덩불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기, 저 위로... 아주 천천히, 기어 올라가고 있다고요. 도대체 무엇을 향해 저러는 건지 하늘만이 아시겠지!"

그때부터 탐구자들 사이로 공포의 씨앗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존재를 뒤쫓는 것과, 실제로 그 존재를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주문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찌할 것인가? 사람들은 아미티지에게 그 존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묻기 시작했으나, 그 어떤 대답도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모두가 자신이 자연의 어떤 국면, 혹은 인류의 온전한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철저히 금기시된 존재의 영역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10월의 어느 날, 미스카토닉 대학교의 아미티지 교수는 아침의 한 서점에서 낡은 원고 한 권을 발견했다. 그 원고는 더니치에서 벌어진 기괴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실로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고 불가해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더니치의 황량한 언덕 너머에는 인간의 상식으로 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특히 센티넬 힐 근처의 콜드 스프링 글렌 일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장소였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길한 전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렸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윌버 웨이틀리라는 기묘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더니치 마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으로 자라났다. 윌

버 웨이틀리는 인간이라기엔 너무나 비정상적인 신체 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불쾌감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원고는 월버 웨이틀리가 네크로노미콘과 같은 금지된 고서들에 집착하며, 요그소토스라는 이름 모를 존재를 불러내기 위해 무언가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서술했다. 그가 행하려 했던 일은 단순히 인간의 이해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원 너머의 존재를 이 세상으로 끌어들이려는, 우주적인 재앙의 시작이었다.

결국 아침에서 온 세 남자가 홀로 산을 올랐다. 백발의 노학자 아미티지 박사와 다부진 체격에 철회색 머리칼을 가진 라이스 교수, 그리고 마르고 젊은 기운이 남은 모건 박사였다. 그들은 망원경을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인내심 있게 설명한 뒤, 길가에 남겨진 겁에 질린 무리에게 망원경을 맡기고 떠났다. 산을 오르는 동안, 망원경을 돌려보며 구경하던 이들은 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했다.

길은 험난했다. 아미티지는 오르는 도중 몇 번이나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 고군분투하며 올라가는 이들의 머리 위 높은 곳에서는, 지옥 같은 창조주가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지나가자 거대한 그림자가 파르르 떨렸다. 추격자가 점점 거리를 좁혀오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썩지 않은 혈통의 커티스 웨이틀리는 망원경을 들고 있었다. 아침에서 온 일행이 기존 경로를 크게 벗어나 우회하기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그는 군중에게, 일행이 분명히 하위 봉우리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

했다. 그 봉우리는 관목들이 휘어져 있는 지점보다 훨씬 앞쪽에서 경로를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었다. 실제로 그의 말은 사실로 드러났다. 보이지 않는 불경한 존재가 그곳을 지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이 그 낮은 언덕에 올라서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때 망원경을 건네받은 웨슬리 코리가 비명을 질렀다. 아미티지가 라이스가 들고 있는 분무기를 조절하고 있으며, 곧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외침이었다. 사람들은 술렁이며 불안해했다. 이 분무기를 뿌려야만 보이지 않는 공포의 형체를 잠시나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두세 명의 남자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으나, 커티스 웨이틀리는 망원경을 낚아채듯 가져와 눈을 부릅뜨고 최대한 집중해서 들여다보았다. 그는 라이스가 괴물의 뒤편 높은 곳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라이스가 강력한 가루를 뿌린다면, 그 효과는 실로 놀라울 것이 분명해 보였다.

망원경을 보지 못한 이들의 눈에는 산꼭대기 근처에서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회색 구름만이 보였다. 그 구름은 꽤 커다란 건물 하나와 맞먹는 크기였다. 망원경을 들고 있던 커티스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망원경을 놓쳐버렸고, 그것은 발목까지 차오른 도로의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다. 커티스는 비틀거렸다. 만약 주변에 있던 두세 사람이 그를 붙잡아 지탱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그는 들릴 듯 말 듯 한 신음만을 내뱉을 뿐이었다.

“오, 오, 신이시여…… 저것…… 저건 대체…….”

[삽화: "오, 오, 위대하신 신이시여... 저... 저것은."]

질문이 빗발치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와중에 헨리 휠러만이 떨어진 망원경을 주워 진흙을 닦아낼 생각을 했다. 커티스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짧게 대답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헛간보다도 더 커요... 온통 꿈틀거리는 밧줄들로 이루어진 것 같았죠... 전체적인 모양은 그 무엇보다도 거대한 달걀 같았는데, 다리는 수십 개나 달려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큰 나무통 같은 다리들이 반쯤 접히더군요... 형체는 전혀 단단하지 않았어요. 전부 젤리 같았고, 꿈틀대는 수많은 밧줄을 억지로 밀어 붙여 놓은 듯한 모습이었죠... 온몸에는 커다란 눈들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고요... 옆면을 따라서는 난로 연통만큼이나 굵은 입이나 코 같은 것들이 열 개, 스무 개씩 빠져나와서, 사방으로 흔들리며 벌어졌다가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온통 회색빛인데 푸르거나 보랏빛인 고리 같은 무늬가 섞여 있었죠... 그리고 세상에, 하늘에 계신 하느님... 그 꼭대기에 달린 그 얼굴이라니!..."

그 마지막 기억이 무엇이었던, 불쌍한 커티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한 채 완전히 쓰러지고 말았다. 프레드 파와 윌 허친스가 그를 부축해 길가로 옮겼고, 축축한 풀밭 위에 눕혔다. 헨리 휠러는 몸을 떨며 구조한 망원경을 산 쪽으로 돌려 무엇이랄도 보려 애썼다. 렌즈 너머로 아주 작은 형체 세 개가 보였다. 그들은 가파른 경사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산 정상 향해 달려가는 듯했다. 보이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모두가 뒤편 깊은 계곡과 센티넬 힐의 덩불 속에서, 계절에 맞지 않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쪽독새가 울어대는 소리였다. 날카로운 합창 속에는 마치 팽팽한 긴장감과 사악한 기대감이 숨어 있는 듯했다.

얼 세이어가 망원경을 건네받아 보고하기를, 세 형체가 가장 높은 능선 위에 서 있다고 했다. 그들은 제단석과 거의 같은 높이에 있었으나, 제단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다. 세이어의 말에 따르면, 그중 한 형체가 일정한 간격에 맞춰 머리 위로 손을 들어 올리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세이어가 이 상황을 설명하자, 군중들 사이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하고도 반음악적인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치 그 몸짓에 맞춰 커다란 주문을 외는 듯한 소리였다. 저 멀리 외딴 봉우리 위로 비친 기괴한 실루엣은 무한히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이었겠지만, 그곳에 있던 관찰자 중 누구도 미학적인 감상을 즐길 기분은 아니었다. "주문을 외우고 있는 모양이야." 휠러가 망원경을 낚아채듯 다시 가져가며 낮게 속삭였다. 휘포윌(whippoorwill)들이 미친 듯이 울어댔다. 그 울음소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의식과는 전혀 다른, 기묘하고도 불규칙한 리듬을 타고 있었다.

갑자기 눈에 띄는 구름 한 점 없는데도 햇살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누구나 알아챌 만큼 아주 기이한 현상이었다. 언덕 아래에서는 무언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끓듯 피어올랐고, 그 소리는 하늘에서 분명하게 내려오는 울림과 기묘하게 뒤섞였다. 머리 위로 번개가 번뜩였으나, 경악한 군중이 폭풍의 전조를 찾아 헤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 컴에서 온 사내들이 읊조리는 소리가 이제는 분명한 소리로 들려왔다.

훔치는 망원경을 통해 그들이 리듬에 맞춰 팔을 치켜든 채 주문을 외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멀리 떨어진 어느 농가에서는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고 있었다.

햇빛의 빛깔이 변하기 시작하자, 구경꾼들은 경악하며 지평선 너머를 두리번거렸다. 하늘의 푸른빛이 유령처럼 짙어지더니, 그로 인해 생겨난 보랏빛 어둠이 웅성거리는 언덕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때 번개가 다시 한번 내리쳤다. 이전보다 훨씬 밝은 섬광이었다. 사람들은 그 빛이 먼 산꼭대기에 놓인 제단석 주변을 뿌연 안개로 감싸고 있는 듯한 환상을 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망원경을 보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휙푸어월 새들의 울음소리는 불규칙하게 이어졌고, 더니치의 사람들은 대기에 가득 찬 정체 모를 위협에 맞서 잔뜩 긴장한 채 몸을 움츠렸다.

예고도 없이 그 소리가 터져 나왔다. 깊고 갈라진 듯한, 쉼 목소리 같은 괴음이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들은 평생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결코 인간의 목구멍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인간의 기관으로는 그토록 기괴하게 뒤틀린 음향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 소리가 심연의 구렁텅이 그 자체에서 흘러나왔다고 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다만 그 소리의 근원이 산꼭대기의 제단석이라는 사실만큼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것을 단순히 '소리'라고 부르는 것조차 어찌면 잘못된 표현일지 모른다. 그 소리가 지닌 소름 끼치고 낮은 저음의 음색은, 귀보다 훨씬 미세하고 본능적인 공포의 영역을 건드리며 흐릿한 의식의 밑바닥을 파

고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리라 불려야만 한다. 그 소리의 형태가 비록 모호하긴 하나, 분명히 반쯤은 발음된 '단어'의 형상을 띠고 있었으므로 말이다. 소리는 거대했다. 마치 그 소리를 반사하며 울려 퍼지는 천둥과 지동만큼이나 컸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의 세계에서 그 소리가 흘러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머릿속을 스치자, 산기슭에 모여 있던 군중은 더욱 몸을 움츠렸다. 사람들은 마치 곧 매라도 맞을 것처럼 몸을 움찔거리며 떨었다.

“이그나이... 이그나이... 트플스카 잉가... 요그소토스....” 우주 저편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개굴거림이 울려 퍼졌다. “이브스펙... 헤예... 응그르크들르...!”

말을 이어가려는 의지조차 여기서 무너지는 듯했다. 마치 어떤 끔찍한 정신적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헨리 휠러는 망원경에 눈을 바짝 대고 살폈으나, 산꼭대기에 기괴한 실루엣으로 비친 세 명의 인간 형상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주문이 절정에 다다를수록 기이한 몸짓으로 팔을 격렬하게 휘둘러댔다. 저 반쯤 뭉개진 천둥 같은 울음소리는 대체 어떤 아케론적 공포와 감정의 검은 구렁에서, 혹은 우주 너머의 의식이라는 심연이나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모호한 유전의 심연에서 끌어올려진 것인가. 이윽고 그 소리들은 극도의, 완전한, 궁극적인 광기로 치달으며 다시금 힘과 명료함을 얻기 시작했다.

“에-야-야-야-야하아... 에-야야-야야아아... 응흐아아... 응흐아아...  
흐으... 흐으... 살려줘! 살려줘! ... 크, 크, 크... 아버지! 아버지! 요그  
소토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다. 그 충격적인 제단석 옆, 광기 어린 공허 속에서 묵직하고도 우레처럼 쏟아져 내린 저 틀림없는 영어 음절들에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던 창백한 무리는, 다시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할 운명이었다. 대신 그들은 산맥을 찢어발기는 듯한 거대한 굉음에 몸을 거칠게 떨었다. 그 소리는 귀를 멍멍하게 만드는 대재앙의 울림이었으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 것인지 혹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지 그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보랏빛 천정에서 제단석을 향해 번개 한 줄기가 내리쬘었다. 그러자 형체도 알 수 없는 거대한 힘과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해일처럼 언덕에서부터 온 들판으로 휩쓸고 내려갔다. 나무와 풀, 덩불들은 광포한 기세로 휘몰아쳤다. 산기슭에 모여 있던 겁에 질린 군중은 숨을 막히게 하는 치명적인 악취에 기력을 잃고 거의 땅에 고꾸라질 뻔했다. 멀리서 개들이 울부짖었고, 푸르던 풀과 잎사귀들은 기묘하고 병적인 황회색으로 시들어 버렸다. 들판과 숲 곳곳에는 죽은 휘포윌들의 사체가 흩뿌려져 있었다.

악취는 금세 사라졌으나, 식물들은 다시는 예전처럼 자라지 못했다. 오늘날까지도 그 공포스러운 언덕 위와 주변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은 무언가 기이하고 불결한 기운을 풍긴다. 커티스 웨이틀리가 겨우 의식을 되찾았을 무렵, 아컴에서 온 사람들이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

들이 내려오는 길 위로, 다시금 눈부시고 깨끗한 햇살이 쏟아졌다. 아  
컴 사람들은 엄숙하고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원주민들을 별별 떨  
게 만든 기억보다 훨씬 더 끔찍한 환영과 생각들에 사로잡힌 듯 보였  
다.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도 그들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고, 오직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만을 거듭 확인해주었다.

“그것은 영원히 사라졌네.” 아미티지가 말했다. “본래 무엇으로 이  
루어져 있었는지로 다시 흩어져 버렸으니, 결코 다시 존재할 수 없을  
걸세. 평범한 세상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지. 우리가 아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물질에 가까운 것은 아주 미미한 파편뿐이었네. 그  
것은 마치 제 아버지와도 같았어. 형체도 모를 어떤 영역이나 차원으  
로, 즉 우리 물질 우주 너머의 모호한 심연으로 대부분의 조각이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지. 인간의 신성모독적인 의식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  
은 의식을 치러야만, 그 심연으로부터 잠시나마 저 언덕 위로 그를 불  
러낼 수 있었을 뿐이라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멈춤 사이로, 흩어졌던 불쌍한 커티스  
웨이틀리의 감각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  
했다. 그는 신음하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끊겼던 기억이 다  
시 이어지는 듯하더니, 그를 무력하게 쓰러뜨렸던 그 끔찍한 광경이 다  
시금 머릿속으로 무섭게 밀려들었다.

“오, 오, 세상에, 그 반쪽짜리 얼굴... 그 위에 달린 반쪽짜리 얼굴 말  
이에요... 붉은 눈에 곱슬거리는 백색 머리카락을 가진 그 얼굴요. 턱  
도 없이, 꼭 웨이틀리 가문 사람들처럼요.... 문어 같기도 하고, 지네

갈기도 하고, 거미 갈기도 한 괴물이었는데, 그 위로 사람의 반쪽짜리 얼굴이 붙어 있었어요. 마치 마법사 웨이틀리의 얼굴 같았는데, 크기가 수 야드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다고요....”

그는 기진맥진하여 말을 멈췄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완전한 공포로 바뀌지는 않은, 그저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노인 제불론 웨이틀리가 입을 열었다. 그는 옛 시절의 기억을 망연히 떠올리는 노인이었다.

“벌써 15년이나 지났구먼.” 그가 횡설수설하며 말을 이었다. “옛날에 웨이틀리 노인이 그랬던 게 기억나. 언젠가 라비니의 아이가 센티넬 힐 꼭대기에서 제 아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릴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조 오스본이 말을 끊고 들어와, 아침에서 온 사람들에게 다시금 질문을 던졌다.

“그게 대체 뭐였는지, 아무튼 말이야. 그리고 그 젊은 웨이틀리 마법사 놈은 도대체 어떻게 그 허공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을 불러낸 건가?”

아미티지는 단어를 신중하게 골랐다.

“그것은—글쎄요, 대체로 우리 우주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일종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자연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성장하며, 스스로를 형상화하는 그런 힘 말입니다. 인간이 감히 외부에서 그런 존재들을 불러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극도로 사악한 자들이나 사악한 광신도들만이 그런 짓을 시도할 뿐이죠. 월버 웨이

틀리 본인에게도 그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를 악마이자 조숙한 괴물로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말입니다. 그가 죽어 나갈 때의 모습 또한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나는 이 저주받은 일기를 불태워 버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저 위에 있는 제단석을 다이내마이트로 날려버리고 다른 언덕들에 세워진 입석들도 모두 무너뜨려야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웨이틀리 일가가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존재들을 불러들였으니까요. 그 존재들은 인류를 멸절시키고, 정체 모를 목적을 위해 지구를 이름 없는 어딘가로 끌고 가기 위해 실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오려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돌려보낸 그 존재에 대해서라면, 웨이틀리 가문은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일들을 위해 그 존재를 불러냈습니다. 그것은 월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자란 것과 똑같은 이유로, 아주 빠르고 거대하게 자라났습니다. 다만 그것은 월버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 존재 안에는 '외부의 것'이 훨씬 더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버가 어떻게 허공에서 그 존재를 불러냈는지는 굳이 물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월버가 불러낸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월버의 쌍둥이 형제였지만, 월버보다 그들의 아버지를 더 닮아 있었습니다."